

8-15-2014

**브니엘교회의 등록교인의 신앙 확립을 위한 교리 교육용 사도신경  
교재 개발**

Young Chul Koo 구영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구영철, "브니엘교회의 등록교인의 신앙 확립을 위한 교리 교육용 사도신경 교재 개발." 박사학위논문, 풀러 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YOUNG CHUL K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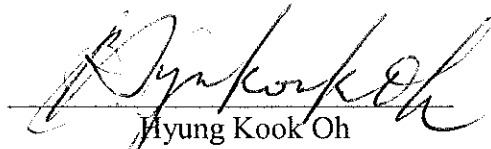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4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CHUL KOO**

AUGUST 2014

# 브니엘교회의 등록교인의 신앙 확립을 위한 교리 교육용 사도신경 교재 개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구 영 철

2014년 8월

### Abstract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

Young Chul Koo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ny churches today are educating and training their people using thematic Bible study materials. As a result, many Christians now lack proper understanding of Christian doctrines, and they have become vulnerable to heretical teaching. In this context, it is urgent for churches to effectively teach their members, especially new members, Christian doctrines. Also, it is necessary for churches to create materials for studying Christian doctrines systemically. This ministry paper argues that the Apostles' Creed, which Christian churches have used as their teaching materials from the beginning, could be a great basis for developing new teaching materials, and it presents new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escribes the history, characteristics of the new and existing members, and issues of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 which has developed and has been using the new teaching materials based on the Apostles' Creed. Chapter 3 presents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s vision and purpose and shows that the church needs to teach its members Christian doctrines in order to accomplish that purpose. Thus, this chapter also insists 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Chapter 4 examines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the teaching materials to be effective. This chapter especially studies cultural and traditional religious factors (such as Confucian and shamanistic backgrounds) that

might affect the life and thought of church members.

Chapter 5 scrutinizes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s newly developed teaching material based on the Apostles' Creed. It focuses on five topics: (1) what the Apostles' Creed is and how important it is to study the Creed; (2) who God the Father is; (3) who Jesus Christ is; (4) who the Holy Spirit is; and (5) what the church is. Chapter 6 examines how the new teaching material has been effective for members of the Peniel Presbyterian Church with respect to active participation, spiritual growth, retention rate of newcomers, and others. After discussing the weaknesses of the material, this chapter also proposes suggestion to improve it. Chapter 7 concludes this study by summarizing this ministry focus paper.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심하는 중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그만 뜻이 열매를 맺은 것이 “사도신경 연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성경공부 교재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성경공부 교재가 아니라, 참으로 유용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고뇌와 필요한 노력들이 이 논문을 통하여 제대로 보여질 수 있다면 또 다른 새롭고 좋은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자그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본 논문을 보는 이에게 꼭 기억해주기 바라는 것이 있다. 사도신경공부 교재와 이를 소개하는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결코 나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의 협조와 격려를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먼저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베풀어 준 홍세광 목사 내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학적인 영감과 새로운 깨달음을 베풀어준 김세윤 교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논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준 김태석 박사에게 감사를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높은 안목을 가지고 친절하게 논문지도를 해준 오형국 박사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사도신경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현장이 되었고 교재 개발과 풀러신학교의 논문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브니엘교회 교인들과 당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2014년 8월 구영철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개요 .....               | 4  |
| 제 2 장 브니엘교회의 특성 및 영적 필요 .....         | 7  |
| 제 1 절 산본 지역의 특성 .....                 | 7  |
| 1. 주민 구성의 특징 .....                    | 7  |
| 2. 주거 환경적 특성 .....                    | 10 |
| 3. 종교적 현황 .....                       | 11 |
| 4. 이단의 실태 .....                       | 12 |
| 제 2 절 브니엘교회의 특성 .....                 | 13 |
| 1. 교인의 구성과 문제점 분석 .....               | 14 |
| 가. 브니엘교회의 역사와 특징 .....                | 14 |
| 나. 교인의 미미한 수적 증가 .....                | 15 |
| 2. 새로운 체계 확립의 필요 .....                | 16 |
| 가. 교제 위주의 신앙 .....                    | 16 |
| 나. 교회 건축 후 신규등록교인의 급증 .....           | 17 |
| 다. 체계적 신앙교육의 미비 .....                 | 19 |
| 제 3 절 신규등록교인에 대한 분석 .....             | 20 |
| 1. 다양한 등록 동기 .....                    | 20 |
| 2. 신규등록교인들의 유형 분석 .....               | 22 |
| 가. 신앙고백이 미형성된 초신자들 .....              | 22 |
| 나. 환난 혹은 질병 등으로 교회 나온 초신자들 .....      | 23 |
| 다. 상당(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교인들 ..... | 24 |
| 라. 이사 혹은 결혼 등으로 새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 .....   | 25 |

|                                       |    |
|---------------------------------------|----|
| 다. 등록하면서부터 열심 내는 교인 혹은 그 반대인 경우 ..... | 26 |
| 제 4 절 신규등록교인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        | 28 |
| 1. 신규등록교인의 적응과 교제의 어려움 .....          | 28 |
| 가. 기존교인들의 배타성 .....                   | 28 |
| 나. 신규등록교인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 새가족교육 .....     | 29 |
| 2. 교회 정착과 신앙성장을 위한 개선책 .....          | 30 |
| 가. 새가족부 조직 개편과 활동영역 개선 .....          | 30 |
| 나. 기초신앙교육의 정착 .....                   | 31 |
| 3. 교인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목회적 개선 .....         | 32 |
| 가. 심방과 설교를 통한 교회의 평안 정착 .....         | 32 |
| 나. 신앙중심적 활동과 체계적 성경공부 .....           | 34 |
| 다. 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목회적 노력들 .....          | 35 |
| 제 3 장 새로운 목회비전과 새 교재의 개발 .....        | 37 |
| 제 1 절 종교개혁정신과 장로교 신앙 확립 .....         | 37 |
| 1. 개혁교회로서 장로교의 정체성 .....              | 38 |
| 2. 장로교 신앙 전통 구현 .....                 | 39 |
| 가. 성경중심적인 개혁신앙과 성경공부 .....            | 40 |
| 나. 개혁신앙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 확립 필요 .....       | 40 |
| 다. 개혁신앙 확립을 위한 목회적 실천 .....           | 42 |
| 제 2 절 장로교신앙 구현을 위한 교회 지표와 실천사항들 ..... | 43 |
| 1. 브니엘교회의 신앙의 3대 지표 .....             | 43 |
| 가. 복음중심적인 교회 .....                    | 43 |
| 나. 제자 삼는 교회 .....                     | 44 |
| 다.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                  | 45 |
| 2. 브니엘교회의 5가지 실천사항 .....              | 46 |
| 가.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 .....             | 46 |
| 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 .....              | 47 |

|                                      |    |
|--------------------------------------|----|
| 다. 병들고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의 회복 .....         | 47 |
| 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현 .....           | 48 |
| 마. 소명의식과 헌신적 사명감 .....               | 49 |
| 제 3 절 브니엘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재 개발 .....      | 49 |
| 1. 목회적 필요에 적합한 새로운 교리교육 교재 .....     | 49 |
| 가. 기초신앙교육 이후 심화 과정으로서 교리교육 .....     | 50 |
| 나. 사도신경 중심의 교리교육 교재의 유용성 .....       | 52 |
| 2. 기독교 기본교리 교육을 위한 사도신경공부 교재개발 ..... | 53 |
| 가. 사도신경에 내포된 교리의 분석과 보완 .....        | 53 |
| 나. 사도신경 구조분석 .....                   | 55 |
| 제 4 장 효과적인 교재 개발의 필요 요소들 .....       | 57 |
| 제 1 절 기독교 교육학적 방향 .....              | 57 |
| 1. 기독교 교육학적 양육의 관점 .....             | 57 |
| 2.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개념 .....              | 58 |
| 3. 대화식 강의를 위한 교재 개발 .....            | 59 |
| 제 2 절 한국의 기독교인의 전통문화적 배경 .....       | 59 |
| 1. 한국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 .....          | 60 |
| 2.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 .....  | 61 |
| 가. 수동적 신앙 자세 .....                   | 61 |
| 나. 가족적 분위기의 역작용과 배타성 .....           | 62 |
| 다. 무속신앙의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적 사고 .....        | 64 |
| 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왜곡 현상 .....        | 66 |
| 제 3 절 사도신경 교리 교육이 절실한 이유 .....       | 68 |
| 1.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 부족 .....              | 68 |
| 2. 기독교의 기본교리에 대한 무지 .....            | 69 |
| 3.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오해 .....       | 70 |
| 4. 이단의 유혹에 취약 .....                  | 71 |



|  |    |
|--|----|
| 제 4 절 사도신경 교리교육의 목표 .....                        | 72 |
| 1. 개인적인 구원 간증과 구원의 확신 .....                      | 72 |
| 2.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확립 .....                       | 74 |
| 3.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 이해 .....                        | 75 |
| 4.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교의 기초 형성 .....                     | 76 |
| 5. 이단적 교리의 분별력 양성 .....                          | 77 |
| 제 5 장 사도신경 공부 교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구성과 내용 ..... | 78 |
| 제 1 절 사도신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적 신앙의 중요성 .....         | 78 |
| 1. 첫째 주-1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                    | 79 |
| 가. 신앙의 법칙 .....                                  | 79 |
| 나. 네 가지 신앙고백 .....                               | 80 |
| 2.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소개 .....                        | 81 |
| 제 2 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                     | 82 |
| 1. 둘째 주 - 2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                  | 82 |
| 가. 전능하신 하나님 .....                                | 83 |
| 나. 창조주 하나님 .....                                 | 83 |
| 다. 아버지 하나님 .....                                 | 85 |
| 2.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 .....                | 85 |
| 제 3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                 | 86 |
| 1. 셋째 주-3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                 | 87 |
| 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                            | 87 |
|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 88 |
| 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                           | 90 |
| 2. 넷째 주-4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                     | 91 |
| 가. 빌라도 총독의 부당한 재판 .....                          | 91 |
| 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                             | 92 |
| 다. 그리스도의 부활 .....                                | 94 |

|                                      |     |
|--------------------------------------|-----|
| 3. 다섯째 주 - 5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 ..... | 97  |
| 가. 그리스도의 승천 .....                    | 97  |
| 나. 그리스도의 재림 .....                    | 98  |
| 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               | 100 |
| 제 4 절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          | 101 |
| 1. 여섯 주 - 6과 성령 하나님 .....            | 102 |
| 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                | 102 |
| 나. 보혜사 성령 .....                      | 103 |
| 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            | 104 |
| 라.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               | 105 |
| 2.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                 | 106 |
| 제 5 절 교회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      | 107 |
| 1. 일곱째 주 - 7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   | 108 |
| 가. 거룩한 교회 .....                      | 108 |
| 나. 공교회 .....                         | 109 |
| 다. 참 교회의 지표 .....                    | 110 |
| 라. 교회의 사명과 하나됨 .....                 | 111 |
| 마.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열매들 .....             | 113 |
| 2. 여덟째 주 - 8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  | 114 |
| 가. 죄 용서의 놀라운 선물 .....                | 115 |
|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               | 116 |
| 다.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 .....       | 117 |
| 라. 몸의 부활 - 죽은 자의 부활 .....            | 118 |
| 마. 부활의 몸과 부활의 실제 .....               | 119 |
| 바. 은혜의 선물 영생 .....                   | 121 |
| 제 6 장 등록교인을 위한 신앙교육 과정의 운영 .....     | 123 |
| 제 1 절 교육 과정 참여와 운영 방법 .....          | 123 |

|                                       |     |
|---------------------------------------|-----|
| 1. 순환식 교육 내용과 계단식 교과 과정 .....         | 124 |
| 2. 성경공부 참여 권유와 결석자 관리 .....           | 125 |
| 3. 수료식과 함께 다음 단계로 안내 .....            | 125 |
| 4. 가르치는 자의 전문화 .....                  | 126 |
| 제 2 절 신앙성장 단계에 맞춘 순차적 교회활동 참여 .....   | 127 |
| 1. 1단계 겨자씨 성경공부 수료 후 교제와 활동 참여 .....  | 127 |
| 2. 2단계 사도신경 성경공부 수료 후 섬김의 자리 부여 ..... | 127 |
| 3. 3단계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수료 후 지도력 인정 ..... | 128 |
| 4. 심화 과정을 위한 기타 영성훈련 단계들 .....        | 129 |
| 제 3 절 새가족부와 사도신경 교재의 활용 .....         | 132 |
| 1.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도입의 효과 .....         | 132 |
| 가. 긍정적인 효과들 .....                     | 132 |
| 나. 초신자의 신앙확립과 체계적 양육의 실현 .....        | 133 |
| 다. 등록교인의 교회 정착의 효과적 개선 .....          | 134 |
| 2.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개선점 .....            | 134 |
| 가. 8주 과정의 제도적 문제 .....                | 134 |
| 나.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교육 .....           | 135 |
| 다. 사도신경 자체의 한계성과 개선 방향 .....          | 136 |
| 라. 강의식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들 .....             | 137 |
| 제 7 장 결 론 .....                       | 139 |
| 부록 .....                              | 142 |
| 참고문헌 .....                            | 149 |
| Vita .....                            | 153 |

## 표 목 차

|                                     |     |
|-------------------------------------|-----|
| <표 1> 군포시 세대수와 인구수와 남녀 구성비 .....    | 8   |
| <표 2> 군포시 연령별 인구분포도 .....           | 9   |
| <표 3> 군포시와 브니엘교회의 연령구성비 비교 .....    | 9   |
| <표 4> 군포시 거주 동기별 통계 .....           | 10  |
| <표 5> 군포시 주민의 학력 및 혼인상태별 통계 .....   | 11  |
| <표 6> 신규등록교인의 통계 및 분석 .....         | 18  |
| <표 7> 사도신경 구조에 따른 교리 항목 분석 도표 ..... | 55  |
| <표 8> 브니엘교회의 성인 양육 7단계 체계도 .....    | 131 |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 1. 연구의 동기

본 연구자가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등록교인과 기존교인들 사이의 신앙적인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위협하여 들어오는 이단 세력과 이단 교리의 침입으로부터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그것이다.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인들이 항상 교회를 찾아오고 끊임없이 새로 등록하여 교회로 유입되어 온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브니엘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브니엘교회를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몇 년 사이에 교인수가 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 교인들과 새로 등록하여 들어오는 신규 등록교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차이와 서로 융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땅하고 좋은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신천지 같은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선량한 교인들을 유혹하며 교회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실제로 예장합동총회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단 피해 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632개 교회 가운데 25.9퍼센트가 피해를 보았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단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이단은 신천지가 34.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원파로 5.4퍼센트, 안상홍증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가 3.6퍼센트, 여호와의 증인이 3.1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단

에 대한 대응 수준은 84.2퍼센트에 이르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 중에 교회의 이단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단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브니엘교회가 위치한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sup>1)</sup>

경기도 산본에 위치한 브니엘교회의 경우 지역적으로 구원과 이단과 신천지 장막성전 이단의 중심지역인 경기도의 안양권 및 과천과 가까워서 이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이 절실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교인들은 물론이요, 교회에 새로 전입해 오는 등록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여 줌으로 이런 이단의 유혹에서 보호하고 나아가서 신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리 공부 가능한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하였다.

현재 한국 교계에는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성경공부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경공부 교재들은 주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라 할 수 있는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은 모두 5주 과정의 새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나바사역 프로그램은 7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교재의 내용은 앞에서 본 교회들이 사용하는 교재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교단에서 발행한 세례교육 교재와 소요리문답 등이 있지만, 이런 교재들은 그 구성이 단답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화와 탐구중심의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 정답을 강요하는 느낌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요구를 충족할 만한 교재를 찾지 못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가르칠 수 있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

---

1) CBS노컷뉴스 2014년 2월 13일자 기사

리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새로 만들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교파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거의 모든 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예배할 때 신앙고백으로 독백처럼 외우고 있을 뿐이며, 체계적으로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일은 소홀히 여겨왔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은 기독교의 기본교리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거나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 교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시간에 무의미한 암송만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교회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오늘날 곳곳에서 활개를 치며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 이단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신자나 일반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전입할 때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판단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교리와 성경적인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교재가 되려면 사도신경의 교리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서 성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리교육용 사도신경연구 교재를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제별로 개발된 성경공부 교재를 통하여 성경공부와 신앙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리함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되었다. 단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소요리문답을 배울 수 있지만, 단답형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고 있다. 이런 교회의 허점을 타고 오늘날 크고 작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며 교인들을 유혹해 가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위험한 현실을 볼 때,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교인들을 양육하며 특히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sup>2)</sup> 그런

2)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168-171.

점에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용하였으며, 교단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신앙고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사도신경<sup>3)</sup>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개요

### 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브니엘교회 현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도신경연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교리교육용 성경공부 교재를 만든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적용한 결과와 개선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브니엘교회의 등록교인은 물론이요 모든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사도신경에 포함된 교리적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성경공부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독교 교육학 관련 문헌과 성경공부 방법론에 관련된 문헌들을 연구하여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성경공부 교재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어서 교회사와 교리사 문헌과 교리논쟁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하여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 때 어떤 교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한 다음, 현재 교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특히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 중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사도신경에 관한 여러 연구 문헌들을 살펴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도신경에서 분석된 교리의 항목별로 교인들이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과 기독교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관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기독교 교리와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다. 이어서 이

3) 사도신경은 이미 3세기경에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종성, *주기도문·사도신경·십계명 외*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135.



렇게 선별된 교리의 각 항목별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경적 해결을 포함하여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로 약 5년여 동안 브니엘교회에서 신규 등록교인들과 기존교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결과와 신앙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커리큘럼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연구한 다음, 본 교재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 나은 교재 개발을 위한 개선책을 찾아볼 것이다.

## 2. 연구의 개요

본 논문은 일곱 개 장과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의 일부를 소개한 부록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사도신경을 통해 기본교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게 된 동기와 문제를 제기하고,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본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브니엘교회에 소속된 기존교인들의 신앙적 특성과 교회 분위기에 대한 분석과 교회 건축 이후 전입해 온 신규 등록교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기존교인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교회의 영적 분위기 개선과 기성교인과 등록교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목회적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교회에 신앙적 활력을 새롭게 할 교회 비전 제시와 목회 방향의 개선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사도신경 공부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4장에서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교인들의 삶과 사고의 바탕이 되는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 그리고 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성숙한 신앙성장을 위하여 사도신경 공부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브니엘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체계를 소개하고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자리매김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새로 개발된 사도신경 공부 교재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사도신경이 무엇이며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되는 전능하신 아버지

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셋째로 사도신경에서 신앙고백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세 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사역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이해를 이끌어 낼 것이다. 넷째로 사도신경에 가장 짧은 고백인 성령에 대하여 한 과를 할애하여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역할과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고백이 되는 거룩한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주는 죄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6장은 브니엘교회의 현장에서 등록교인들에게 새로 개발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한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사용해 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7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을 요약 정리할 것이며, 부록으로 새로 개발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교재 일부를 첨부하여 제시할 것이다.

## 제 2 장

### 브니엘교회의 특성 및 영적 필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에게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강한 동기를 느끼게 한 브니엘교회의 목회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니엘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떤 목회적 상황이 있었기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브니엘교회가 위치한 산본지역의 특성과 브니엘교회의 상황 등을 분석하고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산본 지역의 특성

브니엘교회가 위치한 산본은 지역적으로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안양권에 속하며 상기한 4개 도시에 약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sup>4)</sup>. 2014년 현재 인구 약 28만여 명의 소도시 산본은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인구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 1. 주민 구성의 특징

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한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군포시의 전입인구는 해마다 전체인구 가운데 약 15-20퍼센트에 달하는 약 4만-6만 명가량의 인구가 전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출인구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본의 인구는 10년 동안 매년 거주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출입하는 가운데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건데 산본 지역 주민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

---

4) 2013년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안양시 약 61만 1천여 명, 군포시 약 28만 6천여 명, 의왕시 약 15만 5천여 명, 과천시 약 7만여 명으로 총합 약 112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따라서 본 교회의 교인들도 상당수가 언제든지 이사와 같은 이유로 다른 교회로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경우 등록된 다음 4-5년 정도 지나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브니엘교회의 교인들은 일부 서울이나 인근 안양시와 의왕시에 사는 몇몇 소수의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본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직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인근 안양지역이나 수원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상당수가 된다. 대개의 교회가 그렇듯이 교인들의 남녀 구성비는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보다 많으나, 신도시 지역이라 그런지 본 교회는 남자 교인의 수가 적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부부중심의 핵가족 세대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연스레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오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교회는 연령적으로 보아 주로 30-40대가 주를 이루는 비교적 젊은이들이 많으며, 60대 이상은 10퍼센트 내외인데 그나마 70대 이상은 거의 없어서 본 교회에 부임하고 10년 내로 교회 교인의 장례식은 불과 두 번밖에 없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이런 구성 비율은 브니엘교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의 인구분포와 인구 구성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 인구의 70퍼센트 가량이 산본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산본 신도시의 인구 구성을 알려면 군포시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군포시의 세대수와 인구 구성비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군포시 세대수와 인구수와 남녀 구성비<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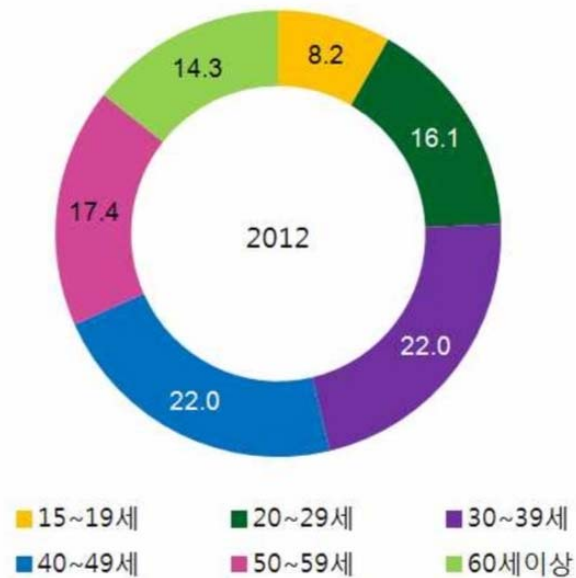
| 인 구 수 (명) |         |         | 남 여 구 성 (%) |       |       | 세대수<br>(세대) | 세대당인구<br>(명/세대) |
|-----------|---------|---------|-------------|-------|-------|-------------|-----------------|
| 계         | 남       | 여       | 남자          | 여자    | 성비    |             |                 |
| 286,344   | 142,559 | 143,785 | 49.79       | 50.21 | 99.15 | 104,735     | 2.73            |

위의 표를 보면, 경기도 인구의 남녀 성비는 남자가 약간 많은 편이지만 군포시의 남녀 성비는 서울시와 비슷하게 여자가 약간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군포시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브니엘교회의 연령비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

5) <표 1>은 군포시, “2102년 제4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군포: 군포시, 2013), 15 에서 인구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함.

음을 알 수 있다. 군포시의 연령별 구성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군포시 연령별 인구분포도<sup>6)</sup> (단위: %)



위의 군포시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는 16.1퍼센트, 30대는 22퍼센트, 40대는 22퍼센트, 60대 이상이 14.3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브니엘교회 교인의 연령분포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군포시와 브니엘교회의 연령구성비 비교<sup>7)</sup> (단위: %)

|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 군포시   | 16.1 | 22.0 | 22.0 | 17.4 | 14.3   |
| 브니엘교회 | 14.8 | 26.7 | 24.0 | 14.7 | 12.2   |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산본 신도시의 인구 구성은 수도권 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6) 군포시, “2102년 제4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9.

7) <표 3>에서 군포시 연령별 인구분포는 2013년 통계이고 브니엘교회 등록교인의 연령별 구성비는 2006년 통계이므로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군포시의 인구비율이 최근 10년 내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 교회 통계는 15세 이상의 연령만 고려한 것이므로 전교인의 연령구성비와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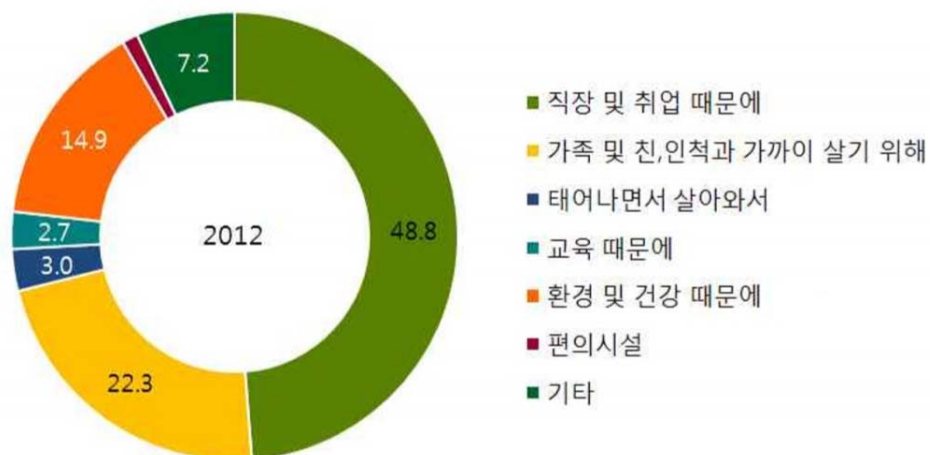
있음을 잘 알 수 있으며,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도 산본 신도시의 거주민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본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 교회 교인들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2. 주거 환경적 특성

산본은 군포시에 속한 신도시이지만 인접한 안양을 주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산본에 상당히 큰 중심상가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자가 교회에 부임할 당시에는 상가 형성 초기여서 그런지 상가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안양과 평촌의 상권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본 중심상가는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3만평 규모의 수퍼블럭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중심상가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었기에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고 10년이 넘어서면서 인근 지역 사람들도 찾아올 만큼 활성화된 상권으로 발전하였다.

산본의 교육환경을 보면,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7개, 일반 고등학교 6개, 외국어 고등학교 1개, 종합대학 1개 등으로 외형적 교육 여건은 수도권의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 여겨진다. 그러나 <표 4>의 산본 주민들의 거주 동기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육 때문에 이곳을 택한 사람은 불과 3퍼센트 미만이며 약 50퍼센트의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이곳을 거주지로 택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표 4> 군포시 거주 동기별 통계<sup>8)</sup>



8) 군포시, “2012년 제4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33.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산본 지역의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육 여건이 더 나은 타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군포시 거주자의 학력 통계를 보여주는 <표 5>에 의하면, 대졸이 약 43퍼센트로 한국 전체 대졸이상학력 40퍼센트에 비하면 교육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다. 이는 브니엘교회 교인들의 학력 구성과도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군포시 주민의 학력 및 혼인상태별 통계<sup>9)</sup>

| 구분         |             |  | 비율 (%) |
|------------|-------------|--|--------|
| 군 포 시      |             |  | 100.0  |
| 성 별        | 남 자         |  | 49.5   |
|            | 여 자         |  | 50.5   |
| 연령별        | 1 5 ~ 1 9 세 |  | 8.2    |
|            | 2 0 ~ 2 9 세 |  | 16.1   |
|            | 3 0 ~ 3 9 세 |  | 22.0   |
|            | 4 0 ~ 4 9 세 |  | 22.0   |
|            | 5 0 ~ 5 9 세 |  | 17.4   |
|            | 6 0 세 이 상   |  | 14.3   |
| 교 육<br>정도별 | 초 졸 이 하     |  | 8.0    |
|            | 중 졸         |  | 11.2   |
|            | 고 졸         |  | 38.1   |
|            | 대 졸 이 상     |  | 42.7   |
| 혼 인<br>상태별 | 미 혼         |  | 28.0   |
|            | 유 배 우       |  | 64.1   |
|            | 사 별         |  | 3.9    |
|            | 이 혼         |  | 3.9    |

### 3. 종교적 현황

브니엘교회가 위치한 산본지역은 해마다 많은 세대가 전입해 들어오는 신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을 보면, 서울이나 인근 지역

9) 군포시, “2102년 제4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9.

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신앙은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다양한 교단이나 교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종교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군포 시내에 몇몇의 불교의 절이나 천주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가장 심각한 종교적 문제가 있다면 타종교가 아니라 이단집단이라 할 수 있다. 산본 신도시는 그리 크지 않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단 교회들이 들어와 있어서 눈에 쉽게 띄며, 산본이 밀집된 소도시이다 보니 이단들의 포교활동도 자주 접할 수 있는 형편이다.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를 중심으로 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분포한 이단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7일안식교회와 이단 김기동의 성락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 물몬교라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 교회 등이 있고 중심상가 건물에 통일교의 교회도 눈에 띈다. 군포시를 벗어나 인근의 안양지역에 있는 이단으로는 구원파 교회와 신천지 집단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이 지역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미혹을 주고 있다. 구원파 이단 교회로 안양 인덕원 사거리에 위치한 서울중앙교회가 있는데 소위 이요한 파라고 하는 구원파 이단 교회의 중심 교회이다. 신천지 이단은 과천 지역에 신천지 교회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장막성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들이 파송한 소위 추수꾼이라는 포교전문가들이 각 교회에 직접 침투하거나 개별적으로 각 가정이나 사업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며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이단의 실태

그래서 본 교회는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다수의 이단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단들의 침투에 대항하고 교인들을 신앙적인 혼란에서 보호하며 스스로 이런 이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려면 성경공부를 통하여 올바른 성경지식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얻은 성경 지식만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의 접근에 대처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극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학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일반 교



인들이 몇 개의 성경공부를 수료하더라도 정통 신앙과 이단 신앙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년간 목회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인들과 성경공부를 해보면, 이단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접할 수 있으며 교회 생활을 오래한 교인이나 여러 가지 성경공부들을 수료한 교인일지라도 이단의 교리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sup>10)</sup>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제 중심의 성경공부(예를 들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도의 능력” 등) 혹은 책별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예를 들면, “공관복음서 연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통독” 등) 혹은 특별 대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부부세미나”, “아버지학교”, “제직 수련회” 등)들은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인들의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성경공부로는 일반 교인들이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 교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적 훈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살펴본 교재들을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적 분위기에서 교인들의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나가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교인들의 신앙성장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을 올바른 기독교 교리로 무장시킬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교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새로 실시할 신앙교육을 위한 성경공부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sup>11)</sup>

## 제 2 절 브니엘교회의 특성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은 복음전도의 열매로서 하나

10) 김기홍, “기독교교리 교육을 통한 진정한 교회성숙-웅암 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8-10.

11)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283-284.

님의 뜻이며<sup>12)</sup> 모든 교회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증가가 반드시 교회 부흥과 교인들의 신앙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적지 않은 교회가 수적 증가를 경험하면서 신규 등록교인과 기존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오히려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브니엘교회도 본 연구자가 목회하기 전에 비슷한 일을 두어 차례 겪은 적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미리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교인의 구성과 문제점 분석

### 가. 브니엘교회의 역사와 특징

브니엘교회는 1995년 3월 26일 부활절에 산본 신도시 중심상가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의 7층을 분양받아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상가교회였다. 교회를 개척한 신영섭 목사는 1-2년의 짧은 기간에 주일예배 참석 100명을 넘어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으나, 교회는 안정적이지 못하여 불과 4-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두어 번의 분열과 다툼을 겪게 되었다. 친교 위주로 교회생활을 해온 교인들이 평소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쌓아 왔는데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며 다투게 되면서 결국 한 쪽이 교회를 떠나는 분열의 아픔을 두어 차례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인들의 마음 속에 신앙적 상처가 남은 것은 물론이요 목회자로서 큰 타격을 입은 신영섭 목사 자신도 영적 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어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던 신영섭 목사는 목회 6주년을 앞에 두고 2001년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별세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때 겪은 마음의 충격과 당혹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적인 상처가 되었던 것 같다.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본 연구자는 브니엘교회의 청빙을 받아 2001년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

12)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31-33. 여기서 교회 확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며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 브니엘교회에 부임하고 위임목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느낀 교회의 분위기는 매우 따뜻하고 화목하다는 것이었다. 사고로 갑자기 목자를 잃은 양 같이 방황하던 교인들은 새로 부임해 온 담임목사에게 더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대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의 첫 일 년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파악하는 기간이 되었으며 평안한 가운데 지나갔다. 그 이후 초기 2-3년을 지나면서 교인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픔과 위축된 신앙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어루만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으나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5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산본 지역에 약 240평의 대지를 교회 부지로 구입하게 되었고 일 년 반 동안의 설계를 마치고 이듬해 2004년 12월 26일에 착공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건축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듬해 2005년 10월 첫 주일에 예배당 건물이 준공되어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 나. 교인의 미미한 수적 증가

브니엘교회는 산본의 중심상가에 위치하였을 때도 등록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본 교회가 위치한 산본 중심상가의 특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본의 중심상가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산본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성인이라면 도보로 10여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건설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중심상가에 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본 교회가 상가 7층에 위치한 약점이 있고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도 매년 약 30명 안팎의 새신자들이 꾸준히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가 잦은 신도시라는 특성과 교회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새 교인들의 교회 출석 불안정 그리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기존 교인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 때문인지, 교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고 갑자기 교회 출석을 중단하거나 타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교회의 수적인 증가는 미미하였다. 더구나 본 연구자가 목회하기 전에 두어 차례 발생했던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은 상당수의 교인들의 이탈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요, 새로 등록하려는 사

람들조차 발을 돌리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그동안 등록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적 증가는 보잘 것 없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규 등록교인은 물론, 신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신앙적인 침체에 빠진 기존교인들을 이끌어줄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마련하여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목회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새로운 체계 확립의 필요

### 가. 교제 위주의 신앙

브니엘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에 본 연구자가 느낀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는 1년 쯤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신영섭 목사의 교제 위주의 목회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임 목회자는 교인들과 개인적 친분을 위주로 함께 모이는 친목 모임이나 식사 교제를 자주 가졌으며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친분을 돈독하게 쌓아가는 교제 위주의 목회를 함으로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친교적인 모임을 좋아하는 교인들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그랬지만<sup>13)</sup>, 브니엘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개인적 친분보다는 교육과 심방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봄 대심방과 가을 대심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인들의 형편을 파악한 다음 성경공부를 개설하였는데 열심히 배우는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불평하는 교인들도 한둘 생기기 시작하였다.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전임 목회자는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교인들과 개별로 식사도 자주 하고 남·여전도회 임원들 혹은 가까운 교인들과 식사 교제와 친교 모임들을 수시로 가졌으나 이제는 그런 모임이 없어지고 교회 분위기가 삭막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에는 친목 위

13) 본 연구자는 1991년 부산에 소재한 은성교회에 부임하여 7년간 목회를 하였던 적이 있다. 이 교회는 은퇴한 전임 목사의 심방 중심적 목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부임하면서 심방을 병행하면서 새신자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와 크로스웨이성경공부 등 다양한 성경공부과정을 개설하고 말씀중심의 목회를 실시하여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신앙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주의 모임을 자주 가지다 보니 교회가 세상적인 친교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 같으며 오히려 좋아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 성향에 따라, 친목 위주의 교회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이런 교인들은 신앙의 기초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친목 위주의 모임을 가지다보니 교회 모임이 자연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분위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이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교회는 사교적인 친목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인들의 신앙을 말씀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세운 다음에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회 안에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활성화해야겠다는 목회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 나. 교회 건축 후 신규 등록교인의 급증

그러던 중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여 상가 교회에서 자체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로 변화되면서 교인의 수적 증가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본 교회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은 곳은 근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던 다수의 신자들이 본 교회로 찾아왔으며,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려운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이후로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교인들 가운데 다수의 교인들이 본 교회를 찾아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 건축이 완성되고 입당예배가 이루어진 다음 5-6년 동안 매년 거의 70명에서 100명 이상의 새신자들이 등록하였다. 특별한 전도프로그램이 없었는데도 신규 등록교인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본 교회를 찾아왔다. 이어나 기타 자연적 이유로 다른 교회로 전출하여 떠나간 교인들을 제외하더라도 건축 후 5-6년 동안 주일예배 출석 인원은 해마다 적게는 약 20여명에서 많게는 약 40 명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에 등록교인 가운데 초신자들이 너무 적은 것을 알게 되었다.

건축 후 5년 동안 새로 전입해온 등록교인들 가운데 초신자와 기존신자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위해 <표 6>을 만들었다. 이 <표 6>을 보면, 신규 등록교

인 가운데 초신자가 기성교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신규 등록교인의 통계 및 분석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전체등록교인           | 74명    | 78명    | 106명   | 64명    | 87명    |
| 초신자등록            | 11명    | 14명    | 18명    | 4명     | 17명    |
| 직분자등록            | 35명    | 35명    | 36명    | 24명    | 33명    |
| 일반교인등록           | 28명    | 29명    | 52명    | 36명    | 37명    |
| 등록교인중<br>기성교인 비율 | 85.1%  | 82.1%  | 83.0%  | 93.8%  | 80.4%  |
| 평균주일출석           | 235.8명 | 246.5명 | 276.3명 | 291.7명 | 300.5명 |

위의 표를 보면, 본 교회 신규 등록교인들의 8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등록교인들이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성교인들이며 게다가 그 중에 절반가량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직분자들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본 교회에 등록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십일조를 바칠 정도로 교회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열심인 교인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이렇게 신규 등록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었으며, 때로는 안수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가진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불과 10퍼센트 내외로 소수에 불과하며, 등록교인들 가운데 약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교인들에게 기초신앙 교육만으로 새신자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고 귀찮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등록교인들에게 일반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새신자교육을 위한 기초성경공부로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만족할 만한 신앙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점에서 초신자를 위한 기초성경공부에 더하여 기성교인들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경공부과정을 신설하여 두 단계의 새신자 성경

공부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신규 등록교인을 위한 기초성경공부와 업그레이드된 성경공부의 두 단계의 새신자 교육과정은 신앙적으로 위축된 본 교회의 기존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판단되었다. 만약 신규 등록교인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새로운 성경공부가 기존교인들에게 소외된다면 신규 등록교인과 기존교인들 사이에 신앙적 불균형으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교인과 신규 등록교인 모두에게 신설 교육과정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다. 체계적 신앙교육의 미비

교회가 불안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도 열리지 않는 법이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신앙성장과 영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본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으나, 교인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지난 날의 상처 때문에 언제 또 다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3-4년이 지나면서 교인들의 마음도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교인들과 친분이 생기면서 몇몇 교인들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속내를 드러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본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새로 부임하고 몇 년 동안 전에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교회가 불안하므로 교인들의 마음도 불안하여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몇 가지 성경공부가 실시되었지만 신앙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상처 입은 기존 교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신앙성숙도 도모하고 동시에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성장과 원활한 교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교인과 등록교인 모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공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초신앙 확립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으로 겨자씨성경공부교재를 개발하여<sup>14)</sup> 본 교회 기존교인들에게 먼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14) 겨자씨성경공부 교재는 일찍이 본 연구자가 부산 은성교회를 담임할 때 새신자교육을 위하여 1992년에 개발한 교재로 브니엘교회에 맞도록 일부를 수정하였다. 내용은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과 구원의 길, 2과 성령충만한 삶, 3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4과 그리스도

교인들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였다. 그리함으로 신규 등록교인과 기존교인 모두 기독교신앙의 건전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에게는 말씀에 기초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교재<sup>15)</sup>를 사용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3 절 신규 등록교인에 대한 분석

등록교인이 많아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등록교인들의 성향과 등록 동기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신규 등록교인들의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일이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려는 본 연구자의 새로운 목회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1. 다양한 등록 동기

브니엘교회가 산본의 중심상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7층에 있다가, 교회 부지를 마련하여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한 다음 5년 사이에 주일예배 출석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sup>16)</sup>, 교회에 등록하는 다양한 교인들을 접하는 동안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사 온 교인들이 곧바로 인근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교회의 경우 예배당이 완공되고 입당한 이후, 주변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미처 정하지 못했던 많은 신자들이 예상과 달리 곧바로 본교회로 와서 등록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 산본이나 군포시로 이사하여 전입해 온 교인들이든지 혹은 출석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 다른 교회를 찾으려는 교인들이든지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분위기를 살펴보고 자신이 다닐 교회를 물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규 등록교인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고 등록

의 몸인 교회, 5과 브니엘교회를 소개합니다, 6과 교회생활을 잘하려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두란노편집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 두란노서원, 1989)를 사용함.

16) 2005년 10월에 입당할 당시에 주일 평균 약 150여 명이 성인예배에 출석하였으나, 5-6년을 지나면서 주일 대예배의 성인교인 출석인원이 평균 약 3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는 데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등록 조건은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가까운 교회로 등록한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경향은 대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았다.

교회를 정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는 교인들이다. 이들은 대개 젊은 세대들이다. 그 가운데는 부모의 판단보다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교회로 등록했다는 자녀중심적인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밖에 외적으로 교회가 갖춘 시설이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등록할 교회를 결정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교회에 자모실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 등록을 결정하거나, 영유아부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는 경향은 젊은 부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이 기독교인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서 영유아를 가진 젊은 세대들은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나 교육부서가 있다는 점이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경우는 담임목사의 설교가 자신들의 신앙에 유익하고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7)</sup> 실제로 브니엘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평가는 신학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좋은 설교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으며, 흔히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대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감정적 의미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반 교인들 가운데도 단순히 “설교가 은혜롭다”고 말하기 보다는 성경중심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브니엘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 중에도 설교에 대하여 성경중심적인 설교라서 좋았다고

17) 민경석,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새 가족 양육-소망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64-65.

하거나 설교가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브니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예배 설교를 강해설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본 교회를 들렀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다른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라고 대답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분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신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따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2. 신규 등록교인들의 유형 분석

본 교회 신규 등록교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찾아서 교회에 등록하지만, 등록한 이후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등록교인들의 신앙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적 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신앙교육에 필요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 신앙고백이 미형성된 초신자들

앞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최근의 경향을 볼 때 본 교회 신규 등록교인 가운데 초신자는 20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경향은 비단 본 교회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 한국교회의 경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부흥하는 교회도 새로 전도한 초신자보다는 기존교인들의 수평이동이라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본 교회의 통계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교인 가운데 초신자들이 비록 적은 비중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의 양들보다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초신자들은 새신자교육에서 중요한 대상임에 틀림없다.<sup>18)</sup>

18) 김길수, “효과적인 새 신자 양육 교재 개발-청주중앙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17-18.

본 교회에 등록하는 초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어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평생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딘 “진정한 초신자”가 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다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돌아온 교인”으로 이들도 초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형은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미세례 교인”인데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런 교인도 초신자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처음 나온 진정한 초신자이든 이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돌아온 교인이든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미세례 교인이든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비록 유형은 다르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같다고 판단된다.

이런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을 초신자로 분류한다면,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 중에도 초신자로 보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보여진다. 이런 기준에 따라 초신자를 다시 분류한다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본 연구자의 판단으로 볼 때, 본 교회의 경우 연간 교회의 신규 등록교인 가운데 10퍼센트 전후로 나타나는 초신자 비율은 약 30퍼센트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나면 등록교인 가운데 나머지 70퍼센트 전후의 사람들이 기존 신자가 될 것이며, 이들 기존신자들 가운데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절반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기성교인들을 제외한 이런 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일반적인 기초신앙교육은 당연히 필수과정으로 하여 기초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 나. 환난 혹은 질병 등으로 교회 나온 초신자들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들 가운데 가장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

면, 환난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다.

IMF사태 이후 재정적 파탄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지만, 이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치의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불치의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질병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믿음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sup>19)</sup>

이런 부류의 신규 등록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깨닫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 다. 상당(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교인들

새로 등록한 교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타한 이유로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형의 교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오랜 기간 교회에 떠난 가장 많은 이유는 첫째,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주일을 쉴 수 없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며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직장이라는 여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경우여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결혼하면서 결혼 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있었으나 시집이나 배우자의 기독교에 대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정생활에 문제가

19) 김길수, “효과적인 새 신자 양육 교재 개발-청주중앙교회를 중심으로-”, 7.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집안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직장 때문이든 결혼 때문이든 이 두 가지 유형의 신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확립되지 못한 초신자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인들은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는 했으나 낯선 생각에 선뜻 이전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교회에서 분쟁이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믿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나 기독교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났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교인들이다. 이들은 다시 교회에 나와도 매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는 할지라도 교인들과 교재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등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사나 그 이상의 직분까지 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떤 이유이든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교인들은 새로운 신앙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의 오랜 공백이 영적으로 침체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경우이므로 이전에 알던 성경 지식이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초신앙교육부터 다시 받도록 권하여 이전의 신앙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sup>20)</sup>

20) 복음을 받아 들인지 오래 되었으나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다시 말씀의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르기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분자이든지 여러 가지 성경공부를 수료했을 지라도 새가죽을 위한 기초성경공부 과정의 수료가 필수가 될 것이다.

라. 이사 혹은 결혼 등으로 새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가 이사를 왔거나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인근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들의 신앙배경은 다양하며 신앙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사를 했더라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거리에 상관없이 이전에 교회로 찾아간다. 그러나 병이나 사고로 몸이 불편하거나 은퇴한 뒤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교회를 정하거나 아니면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를 한 다음 편한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미고 교회를 찾은 신혼부부들은 그들의 주된 관심이 교회를 향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신혼부부라는 특성이 부부 사이의 단란한 관계와 새로 꾸민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이들이 비록 믿음이 좋고 결혼 전에는 교회에 중심적인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주일예배 위주로 출석하며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교회 안의 다른 활동들은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신앙교육에 무관심하고 참가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에 갈급함이나 위로받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간구할 일도 없다. 이전에 신앙적인 갈등을 겪은 것도 아니다. 이런 교인들은 성경공부나 구역 모임 혹은 기타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하게 권면하여도 크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신앙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교인들이야말로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신앙중심의 삶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마. 등록하면서부터 열심 내는 교인 혹은 그 반대인 경우

등록교인 가운데 특이한 교인들이 더러 있다. 이들은 등록하자마자 열심을 낸다. 성가대 봉사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도 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청소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등

에 열심을 낸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교회 안에서 기존의 다른 교인들과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기존교인들과 자꾸 부딪치다 보면 결국 이런 열성적 교인들은 대부분 갈등을 겪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가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 바로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신에 신규 등록교인들을 위한 신앙교육 과정을 수료한 다음 봉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올바른 신앙태도를 가지고 교회 봉사나 활동을 할 때 자기 열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본 교회의 특성과 기존 교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등록을 하였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도 참여하지 않으려는 교인들도 있다. 이런 교인들 가운데는 수 년 간 교회를 다녀도 구역 모임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세례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리집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다. 이런 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성경공부도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아무리 권유해도 기본적인 기초신앙교육조차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은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적 형태나 교회라는 제도나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에 큰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교회에 깊이 관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날 수도 없어서 새로운 교회에 찾아와서 마음에 상처도 씻어내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혹시 여기서도 저번 교회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로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일종의 신앙적인 트라우마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 생각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참으로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절실하지만 자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제 4 절 신규 등록교인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성장을 돕고 올바른 기독교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새가족 성경공부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성장을 돕는 것 이외에 이 과정을 밟는 동안 신규 등록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기존 교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sup>21)</sup> 그러므로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요, 새로 도입하려는 성경공부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브니엘교회에서 새로운 성경공부 과정이 신규 등록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성경공부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1. 신규 등록교인의 적응과 교제의 어려움

###### 가. 기존교인들의 배타성

본 교회의 경우, 교회에 새로 등록하여 전입해 들어오는 신규 등록교인들이 기존 교인들의 전도에 의하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본 교회 교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경우들이 신규 등록교인 가운데 연 평균 약 70퍼센트 가량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교인들과 신규 등록교인들 사이에 교제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서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였다. 기존교인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손쉬우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쉽게 어울리게 되고 새로 전입해온 신규 등록교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신규 등록교인들에게는 교회가 배타적인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sup>22)</sup>

21)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403.

22) Donald A. McGavran, & Winfield C. Arn, *교회 성장의 열단계*, 오태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04.



이런 상황에서 본 교회에 전입하여 들어온 신규 등록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기존교인들에게 다가가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교회에 정착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 교회는 새 신자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목회자인 본 연구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되고 이런 현상을 문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교인들이 새로 온 새신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제직세미나 혹은 중직자수련회 등에서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게 될 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을 중심으로 새로 등록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도 했지만, 막상 그때뿐으로 기존교인과 신규 등록교인 사이에 거리감은 쉽사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새가족교육의 내용만 좋으면 되지 신규 등록교인의 교회적응은 본인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단이나 세상 유혹에 빠지는 교인 대부분이 교회 안에 교제권이 형성되지 못한 외톨이 교인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교인들에게 이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교회 안에 물어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이단의 유혹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만약 두어 명의 교인들과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기로 해도 결코 쉽사리 이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가족교육의 내용 못지않게 교회 적응과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나. 신규 등록교인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 새가족교육

본 교회에서 신규 등록교인이 기존교인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못하고 기존교인들은 신규 등록교인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이때까지 브니엘교회에서 시행되어온 새가족교육은 신규 등록교인들에게 개인의 신앙성장과 간단한 교회 소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에 적응하고 기존교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규 등록교인들의 새신자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새신자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교회의 구역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수료하면 성가대나 교회학교 같은 봉사부서와 남전도회 혹은 여전도회의 회장과 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두 명 이상을 소개하여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일날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소개가 어려운데다 한 번 인사하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 새신자와 가까워지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등록심방을 갈 때, 심방권사와 구역장 이외에 새로 등록한 교인이 소속하게 되는 남·녀전도회 회장이나 임원이 반드시 두 명 이상 같이 심방을 가서 새신자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랬더니 확실히 이전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심방을 다 마친 다음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금방 친숙해지는 일도 있었다. 신규 등록교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친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새가족교육은 기존교인들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sup>23)</sup>

## 2. 교회 정착과 신앙성장을 위한 개선책

### 가. 새가족부 조직 개편과 활동영역 개선

브니엘교회의 새가족부는 처음에는 새신자부였으나 새신자라는 명칭은 초신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초신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신자들이 많다하여 이름이 맞지 않으니 바꾸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새가족부로 바꾸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경우 초신자 전도는 거의 없고 기존교인 사이의 수평적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많은 교회에서 새신자라는 말보다는 새가족이란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토의를 거쳐 본 교회는 새신자부를 새가족부로 바꾸면서 초신자의 기초신앙교육보다는 기존신자의 교회 적응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고 해서 새신자의 기초신앙교육을 포기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기초신앙교육은 이전부터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은 기존대로 계속 잘 시행되도록 하고, 더하여 타 교회에서 여러

23)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04.

가지 이유로 본 교회로 유입되어 온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확립과 본 교회에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다.

먼저 새가족부의 조직부터 개편했다. 새신자부 때는 등록교인의 등록카드를 받고 새가족실로 안내하여 목회자와 만나게 해주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 그런 다음 식당으로 안내하여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등록교인을 위한 기초신앙교육인 새가족반 성경공부 장소로 안내를 하면 그 임무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러나 본 교회에서는 새가족부의 역할을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였다. 우선 달라진 것은 새가족실에서 목회자와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 등록교인을 식당으로 안내하여 식사를 나눌 때 소속되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의 임원을 소개하고 구역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등록교인을 7주 과정의 새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할 때까지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에는 불과 세 사람이 전부였던 새가족부의 인원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자원자를 모집하여 인원을 세 사람을 더 보충하여 배로 증원을 하였고, 각 구역장과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회장단을 새가족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새가족부에서 연락을 하면 새로 등록한 새신자와 연관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의 임원과 소속 지역의 구역장이 바로 와서 등록교인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기초신앙교육의 정착

그러나 이런 제도를 통하여 등록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등록교인들이 낯선 새 교회를 내 교회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새가족부에서 등록교인을 안내하고 구역장이나 남녀선교회의 회장이나 임원들과 같은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지만 막상 등록교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자신을 여전히 교회에 찾아온 손님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등록교인 자신이 본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두세 달 이상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익숙해지고 다수의 기존 교인들과 친숙해지는데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7주 과정의 새신자를 위한 기초성경공부를 온전히 수료한 사람은 90퍼센트 이상 교회 정착을 잘 하여 교회를 떠나

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새신자를 위한 기초신앙교육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착율은 불과 30퍼센트 이하로 매우 낮았다. 이는 새신자를 위한 기초성경 공부의 내용이 특별히 좋았다기 보다는 기초성경공부를 하느라 7주 동안 교회를 꾸준히 나온 결과로 교인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적응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부수적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초신자이든지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적을 한 기성교인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정착율이 같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분석하면 기성교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기초신앙교육을 충분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공부에 열심을 낸 몇몇 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존교인들이 사실상 초신자와 신앙적인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7주 과정의 새가족성경공부과정은 신규 등록교인의 교회정착에 가장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 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새가족 성경공부는 신규 등록교인이 교회에 친숙해질 수 있을 만큼 7주 혹은 두 달 가까이 충분히 길어야 할 것이다. 한두 주 정도의 성경공부로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교회가 기성교인이든지 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기초신앙교육을 받도록 하는 새신자 성경공부 정책이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3. 교인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목회적 개선

교회의 신앙교육이 반드시 성경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인 각자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와 성경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심방과 설교의 영향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신앙교육과 함께 심방과 설교에 힘을 쏟았다.

#### 가. 심방과 설교를 통한 교회의 평안 정착

한국교회는 흔히 심방을 통해서 부흥했다고 한다. 물론 어찌 교회 부흥이 심방 하나로 이루어졌을까마는 그만큼 심방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그에 비하여 요즘 한국교회를 볼 때, 과거 목회에 비하여 심방이 상당히 도외시 되고 있는 것 같은 분

위기가 널리 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대심방을 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대형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들이 대심방을 하지 않는 것을 본받은 것인지 중소교회에서도 대심방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심방만 아니다. 이제는 일반 심방도 거의 없어지고 오직 유고 심방만 남아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브니엘교회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하면서 부터 대심방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웠던 만큼 위로가 필요하였기에 더욱 심방을 열심히 하였다. 지금도 대심방과 유고 심방은 물론이요 수시로 필요한 경우 심방을 실시하여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몇 년 꾸준히 대심방을 실시한 결과 교회가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갔다. 교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말이 교회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활성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인들의 신앙교육에 교인들의 마음의 평안이 왜 중요한가? 사실 교인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성경공부나 신앙교육은 매우 힘들어진다. 마음의 상처나 신앙적인 문제를 치유 받지 못한 교인은 신앙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며 설혹 신앙교육에 참여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방목회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심방만 계속하면 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에 병행하여 본 연구자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설교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브니엘교회처럼 여러 차례의 어려운 시험을 겪었고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교회에서 흔들리는 교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있어 복음적인 설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꾸준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성경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서 교회 봉사하는 일도 점점 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남아돌지는

24) 이상운, *목회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107-108.

않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부족하여 어렵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다.

더구나 꾸준히 성경 본문 중심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한 결과 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는 참으로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 성경본문 중심으로 복음적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고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성경공부를 활성화 하려면 성경본문 중심의 설교를 꾸준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25)</sup>

지속적인 대심방과 복음적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한 심방과 복음적 설교가 기존교인들로 하여금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만들고 교회의 안정과 평안만 이루는 것이 아니다. 새로 브니엘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도 심방을 받고 성경본문 중심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됨으로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공부에 마음이 열리면서 기존교인들과 교제의 기회도 늘어나고 교회 정착도 잘 하게 되는 효과도 함께 얻었다고 하겠다.

#### 나. 신앙중심적 활동과 체계적 성경공부

심방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기존교인들의 신앙적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교회 모임들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신앙중심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단 것이 입에 당기겠지만 곧 물리게 되듯이 친교 중심의 활동은 당장은 가까워지기 쉬운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제의 결과 서로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서로 부딪치게 되고 불화가 생기면서 시험에 들기 쉬운 부작용이 생기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신앙중심적인 교회 활동은 당장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교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교인들 사이에도 인간적인 갈등을 줄여주어 보다 나은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새로 등록한 전입교인들의 정착에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신앙교육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면서 교인들의 신앙도 성장하여 곳곳에서 서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말씀에 대한

25) 개신교 예배의 본질은 성경에 근거한 구원 메시지 선포이며, 갈뻥을 중심으로 한 많은 개혁가들은 지속적으로 예배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153.

의문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경우는 목사에게 와서 알아보고 가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교인 사이에 갈등 때문에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거나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는 상담이 많았는데, 이제는 성경에 대한 의문에 대한 상담이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찾아와서 기도 받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브니엘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친교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인간적인 다툼으로 이어져서 결국 개인적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비화되어 교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수가 많이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성경 중심의 설교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하고, 심방 등으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며 잘 관리할 때는 비록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한 위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이나 교회 내의 불화한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 부임하고 3-4년이 지난 다음부터 교인들로부터 “교회가 참 평안해졌다.” “목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마음 편해졌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목회적 노력들

교회는 평안하면 부흥되게 마련인 것 같다. 새로 들어온 등록교인들도 교회가 평안하기에 쉽게 정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회의 평안만으로 새로 들어온 신규 등록교인과 기존교인 사이에 서로 융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교인들도 새로 온 교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온 교인들이 낯설어 친해지기 어렵다고 말하고, 등록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더욱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다가와서 안내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생활이 어렵다는 불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교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았다. 아무래도 기존교

인들이 새로 온 등록교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인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주기만 바랄 뿐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 자세를 보였다. 이로 보건데 교인들의 자발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교인과 신규 등록교인 사이의 융화를 이루려면 교회 안에 제도적인 방법이나 서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가족반 운영을 단지 신규 등록교인에게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알려주고 기초신앙 교육을 참여하게 함으로 신앙성장을 도와주는 일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교회 정착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 2회 새가족환영회를 가지고, 교회 전체 교인들을 위한 수련회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신앙 확립과 교회 적응을 충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존 교인들과 신규 등록교인들 모두에게 함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줄 수 있으면서 성도의 교제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보다 새로우면서 심화된 신앙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게 되었다.

---

26)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17. 여기서 새신자를 공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는 소속감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만 하다 생각한다.



## 제 3 장

### 새로운 목회비전과 새 교재의 개발

앞 장에서는 브니엘교회의 외적 상황과 교회 건축 이후 증가한 신규 등록교인으로 직면한 새로운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브니엘교회의 목회 방침과 현재의 신앙상태를 분석해봄으로 새로운 교재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종교개혁신앙을 근간으로 한 목회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새신자와 기존교인들의 신앙성숙을 위하여 새로 개발하려는 교재는 사도신경 중심의 성경공부교재여야 함을 논증하고 사도신경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재개발을 위한 기독교교육학적 방향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신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교재에서 성공적인 기독교교리 교육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 제 1 절 종교개혁정신과 장로교 신앙 확립

신규 등록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초신앙 확립을 위하여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신규 등록교인들을 바라만 보던 기존교인들도 입장을 바꾸어 같이 성경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권이 형성되는 일은 본 연구자가 새로 도입하는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의 중요한 부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등록교인들은 본 교회에 새로 들어왔으니 본 교회의 제도를 따라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교회에 적응하려는 마음에서 대체로 잘 따라오지만, 기존교인들은 이제 와서 새로운 성경공부가 생겼으니 참석하라고 하면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해야 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고 브니엘교회의 비

전을 새롭게 제시하여 모든 교인이 기초부터 새롭게 체계적인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1. 개혁신교회로서 장로교의 정체성

이런 목적을 위하여 제일 먼저 부각시켜야 할 것은 역시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브니엘교회는 장로교회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개혁교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는 개혁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차이가 별로 없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이런 구별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자신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될 때, 대부분 굳이 장로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기독교라는 사실 이외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혹은 침례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본 연구자의 생각은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다워야 하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 간판과 예배 순서의 차이 이외에 교단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특색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성경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혹은 성결교회나 침례교회와 같은 교회 명칭의 구분이 왜 있는지 그리고 각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교인들의 눈에 다 비슷한 교회로 보이고, 실제로 가보면 설교의 내용이나 성경공부하는 내용이나 신앙 생활하는 모습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왜 굳이 교단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지 교인들은 의아한 것이다.

브니엘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브니엘교회에서 오래 동안 신앙생활하고 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으며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었으며 거기에다 교회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교인일지라도 장로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교인에서조차 비슷하게 나타난다.

더 심각한 것은 개신교회와 로마천주교회의 차이에 대하여도 매우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회는 목사가 있고 천주교회는 신부와 수녀가 있다는 것으로 구별한다든지, 개신교회는 예배라고 하는데 천주교회는 미사라고 한다는 정도

만 알고 있다. 그러나 목사와 신부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예배와 미사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다른지 등 이런 명칭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합예배 몇 번 드리면 두 교회 사이에 연합이 되는 줄 안다. 정말 단순하고 낭만적인 이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개신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가 장로교회이든 감리교회이든 교단은 별 상관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그동안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성장 위주의 신학에 크게 이끌려서 어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잘 된다고 여기면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어느 교파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성장한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 성장한 교회의 설교와 성경공부와 행정을 그대로 모방하기에 힘써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각 교회 사이에 교파적 특징이 강조되지 않는 형태로 교회가 발전해 온 것 같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각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듯이 각 교회의 정체성은 중요하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되겠지만, 장로교회 교인이 장로교회의 특징과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단과의 구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 상실은 신앙의 기준이나 목표를 잃어버린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회는 장로교회이므로 장로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며 개혁신앙이 어떤 것인지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개혁신앙과 장로교 정신을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와 성경공부의 방향을 종교개혁 정신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의 목표를 삼았다. 그래서 본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브니엘교회는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장로교회임”을 교인들에게 확인시키고 진정한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올바른 장로교회를 세워가자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으며, 설교를 할 때도 새신자 교육을 할 때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2. 장로교 신앙 전통 구현

### 가. 성경중심적인 개혁신앙과 성경공부

개혁교회의 신앙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 정신의 출발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이다. 종교개혁 정신에서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러므로 본 교회 교인들이 브니엘교회가 개혁교회임을 자처하고 교인들 스스로 자신이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연히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정신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은 역시 성경공부에 참여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진정한 개혁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로마천주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 안에 겉으로는 개신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여 로마천주교인이나 다름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요즘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옮겨가는 현상<sup>27)</sup>이 생긴 것도 이런 원인에서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를 가장 가까운 종교로 여기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인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교회개혁의 비전으로 제시하여 성경공부의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본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교회의 기본 신앙정신으로 삼고 개혁신앙으로 모든 교인들이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 나. 개혁신앙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 확립 필요

장로교 소요리문답 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는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이다. 세례 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배우겠지만,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교인에게 물어봐

27) 미래목회포럼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2011년 12월 2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의 종교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 포럼에서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개신교를 떠나면 천주교로 간다.”는 통계분석을 내놓았다.

도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교회는 장 칼뱅(John Calvin)의 신앙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칼뱅 신학의 중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장로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물어보면 “장로교회에는 장로가 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교인들이 상당수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장로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주교회와의 차이에 대하여도 성당의 모양이 교회와 다르다는 것과 같이 외적 차이 이외에 달리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정도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장로교 신앙의 핵심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공부의 첫째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소요리문답을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세례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면 교리교육을 강조하면 교인들에게 진부하게 보일 것이며 배우기도 전에 식상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제를 만들어서 새가족반 성경공부 교육을 하되, 본 교회의 기존 교인들에게도 이를 배워야함을 강조하고 주지시킴으로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기존 교인이든지 신규 등록교인이든지 성경공부에 참여함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장로교적 신앙전통에 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믿음을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개혁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교인들 스스로 참다운 개혁신앙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이렇게 함으로 브니엘교회의 우선적인 비전인 장로교회의 정신을 재정립하여 진

28)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5.

29)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91. 여기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관 형성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한 개혁교회를 이루어 가는 기초를 놓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개혁신앙 확립을 위한 목회적 실천

브니엘교회에서는 개혁 신앙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실제 생활에서 개혁신앙과 장로교 신앙전통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목회적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개혁신앙과 정신을 교회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브니엘교회는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성찬과 함께 종교개혁가들의 신앙과 종교개혁의 역사를 설교하며, 종교개혁기념 특별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실시하여 모든 교인들에게 종교개혁 신앙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종교개혁기념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은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는 개혁신앙의 후예”라는 정체성과 개혁신앙전통에 서려고 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교인들에게 개혁신앙을 설교하고 가르친다 해도 목회자 자신이 진정한 개혁 신앙으로 무장하여 목회를 하면서 개혁신앙전통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교인들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먼저 루터의 신앙과 칼뱅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신학책들을 가능한 자주 읽으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평신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과 안수집사들 그리고 권사들에게도 종교개혁적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읽도록 권하거나 주중에 개혁신앙적인 책자들을 목회자와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며 개혁신앙 전통과 개혁적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0)</sup>

기존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하였지만, 새로 등록한 신규 등록교인들에게도 새가족반 성경공부 과정에서 겨자씨 성경공부 교재를 배우게 함으로 종교개혁 정신과 장로교회의 신앙 중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 기존교인들과의 신앙적 차이를 빠른 시간에 좁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1)</sup>

30) 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와 안수집사들과 함께 읽은 신앙서적으로 존 번연, 천로역정과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Donald E. Demaray, 루터에게 듣는다,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두란노, 1992) 등을 읽고 대화를 나눈 결과, 매우 유익하였다는 평가를 들음.

31) 본 교회에서 신규 등록교인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겨자씨성경공부” 교재의 내용에 개혁신앙과 장로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다.

## 제 2 절 장로교신앙 구현을 위한 교회 지표와 실천사항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브니엘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3가지 성격의 교회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

### 1. 브니엘교회의 신앙의 3대 지표

본 연구자는 교인들의 신앙이 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진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 신앙과 장로교 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복음중심적인 교회”와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3가지 성격의 교회를 실현하자는 교회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한 메시지이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양육하여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맡긴 사람들이며, 선교는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세 가지 교회 지표를 제시한 것은 성경중심적인 신앙이 될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신앙 목표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실천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가. 복음중심적인 교회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는 성경중심적 신앙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신앙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적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율법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외치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그 점에

서 주님과 동일하다.<sup>32)</sup>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선택받았다(림 1:1)고 하였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롬 1:16)”고 증거하였다.

여기서 복음적 신앙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 신앙은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은혜로 베풀어주시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이 개인적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임을 선포하는 것이다.<sup>33)</sup>

본 교회는 이 복음이 성경말씀의 중심 메시지라 믿으며,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도 이런 복음적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여 교회가 복음적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나.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곧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양육하셨다. 이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으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여 보여주었고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명령하셨다. 주님은 제자 양육이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제자 양육이란 단순히 교인의 수를 늘리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의 목표를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교세는 세계적이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교인의

3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16-17.

33)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25-29.

34) Keith Phillips, *제자양육론*, 전요섭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22-24.



수를 늘리는 교세확장의 방법론에 주력한 반면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35)</sup> 그런 의미에서 제자 양육은 현재 한국 교회의 고질적 병폐인 교세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브니엘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 양육을 통하여 각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한 사람씩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감으로써<sup>36)</sup> 세계복음화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려고 한다.

#### 다.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왔으며, 또한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였다.

그러므로 브니엘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를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sup>37)</sup>

아울러 선교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선교의 다른 한 면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그리함으로 교회는 세상의

3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3명 역 (서울: NCD, 1999), 6-7.

36)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참조하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은 제자양육 방법이 초대교회의 일반적 신앙교육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7) 고용수, 권용근, 김광률, 송남순, 이영호, 기독교교육개론(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302.

38) Ibid., 296.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브니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며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선교와 함께 사랑의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이 지표를 선포하고 강조하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를 이루어 가려 하고 있다.

## 2. 브니엘교회의 5가지 실천사항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으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교회의 3대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활동을 분석하여 5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신앙교육을 해 나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신앙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up>40)</sup>

여기서 말하는 신앙고백이란 사도신경이나 교리문답같이 체계적인 신앙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는 다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교회 나오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자신의 생

39) 목만수, *선교 신학 문화*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출판부, 2002), 15-18. 여기서 복음전도와 사회구원의 조화를 주장하며 두 선교의 개념은 상호보완적이며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0) Donald A. McGavran, & Winfield C. Arn, *교회 성장의 열단계*, 39.

각과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세례를 받을 때이다. 세례교육을 할 때, 자신의 신앙고백을 적어서 교회 앞에 발표하게 함으로 보다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본 교회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분한 지식은 신앙적인 분별력을 향상시켜주며,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확실히 힘을 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분한 지식이 있었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sup>41)</sup>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됨으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도록 신앙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성경교육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도 있으며 거짓 이단에도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을 통하여 모든 교인들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공부 과정을 개설하고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다. 병들고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의 회복

41)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11절과 누가복음 4장 1-13절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

현대 사회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이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결코 사람들을 쉬게 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한 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놀라운 치유와 위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복음을 심각하게 비난하기조차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위로와 구원이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아온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어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온 사람들에게 브니엘 교회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이 고침 받도록 도와주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 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현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찾고 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 육체적 쾌락과 환락을 사랑으로 대신하며, 인간적인 사랑을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사랑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짓 사랑에 속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귀한 것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거짓 사랑에 속고 상처 입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며, 더하여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 마. 소명의식과 헌신적 사명감

마지막으로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꿈은 세속적이며 썩어질 것이며 참된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며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세상에 매인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주님은 과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며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며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 제 3 절 브니엘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재 개발

새로운 교회 비전과 성경공부의 목표가 제시되면서 교인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기초성경공부인 새가족성경공부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집사들과 일반교인까지 많은 교인들이 짧은 기간에 수료할 수 있었다. 교회의 신앙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회 방침에 따라 본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 1. 목회적 필요에 적합한 새로운 교리교육 교재

본 연구자가 브니엘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신앙교육 교재인

“겨자씨성경공부”는 원래 초신자를 위해 개발된 교재이다. 그래서 본 교회처럼 초신자보다 타 교회에서 영입한 등록교인들이 더 많은 경우, 초신자용으로 개발된 겨자씨성경공부 교재로는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성장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기초신앙교육 과정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재를 개발하여 신규 등록교인들의 신앙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가. 기초신앙교육 이후 심화 과정으로서 교리교육

기초신앙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다 심화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과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성경적인 이해의 정도를 알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유용한 교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니엘교회가 위치한 산본지역에는 신천지 이단을 비롯하여 여러 이단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 인근 지역에 몇몇 교회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브니엘교회에도 신천지 추수꾼들이 찾아와서 교인들을 유혹하여 신천지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안양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구원파의 중심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는데 사실인지를 묻는 본 교회 교인들의 질문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외에도 산본에는 곳곳에 자리 잡은 여러 이단 교회들이 쉽게 눈에 띄다보니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이단과 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신앙상담도 타 지역 목회자보다 자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여겨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sup>42)</sup>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계에서 많이 사용된 성경공부 교재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공부 교재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많은 성경공부 교재들이 주제별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다. 그나마 교리를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몇 가지 교재와 교단에서 만들어진 세례

42) Karl Barth, *사도신경 해설*, 신경수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14-15. 여기서 칼 바르트는 교회의 신앙고백은 인간의 오류에 대한 교회의 전투행동이며, 교회의 파수꾼이라고 주장한다.

문답용 교재가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교육용 교재가 열악하였다.

교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며 재미없는 공부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교리는 구시대의 산물이며 교리는 살아 있는 기독교 신앙의 결립돌이라 여기는 풍조조차 있다.<sup>43)</sup>

그러나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리를 무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교리에 대하여 부정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할지라도, 교리는 결코 비신앙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경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의 조항들을 결집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44)</sup>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성경공부에 많은 힘을 써온 것은 좋았으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 교육에 소홀한 대가를 최근에 창궐하는 사이비 이단들로부터 입고 있는 엄청난 피해를 통해 값비싸게 치루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교리 교육을 하려고 할 때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각 교단의 가르침을 혼합적으로 받은 교인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점이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동한 결과로 생긴 현상이다. 어떤 이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어떤 이는 침례교에서 자랐으며, 어떤 이는 순복음교회에서 왔다. 어떤 이는 두세 가지 서로 다른 교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런 교인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의 교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런 이들이 브니엘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파와 교단에서 배운 다양한 신앙적 바탕을 가진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앙성장도 도모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면, 교단이나 교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리교육이어야 할 것이다.<sup>45)</sup>

그러려면 같은 교회에서 화합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에 적합한 교리 교육용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교파와 교단의 교리를 통합할

43)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옮김 (서울: 목양사, 1986), 13. 여기서 교리 없는 기독교 혹은 교리를 신앙의 결립돌로 여기는 현대 풍조에 대한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44)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I) 고대편*, 이형기·차종순 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32-37.

45)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201-202.

수 있는 좋은 교리 교육 교재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만다.

#### 나. 사도신경 중심의 교리교육 교재의 유용성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가지고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브니엘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적합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사실 브니엘교회를 담임하여 여기에 오기 전에 부목사 시절부터 다른 교회에서 교단에서 나온 문답식으로 된 세례문답집이나, 총회 헌법에 있는 소요리문답 혹은 신앙고백서들을 중심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해보기도 하였고, 질문 하나 하나마다 자세하게 가르쳐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례문답집은 일반적으로 세례 교육 때 이미 배운 내용이니 이것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다시 되풀이 하여 같은 내용을 재교육하는 모양새가 되어, 등록교인들 대부분이 기존교인인 상황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공부가 되고 말았다.

특히, 소요리문답은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어 가르치기 쉽고 좋으나, 질문 바로 아래 답변이 달려 있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정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 효과 면에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치 정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아왔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교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때는 내용보다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겨서 소요리문답서를 관련 구절 하나까지 자세히 가르친 적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느낌마저 들어서 피교육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사도신경에 새롭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사도신경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대예배시간에 다 같이 외우면서 신앙고백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사도신경은 기독교 초기부터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신앙고백으로 이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화된 신앙고백이다. 물론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 교리교육에 사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신앙고백이라고 생각되었다.

교리로 말한다 해도 사도신경이야말로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하여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정리한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로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교리를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도신경은 어떤 교단도 어떤 교파도 거부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인이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종교개혁가로서 종교개혁 신앙을 집대성한 갈뱅의 역작 *기독교강요*의 구성도 처음에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해설에서 시작되었다는<sup>46)</sup> 사실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뿌리를 잇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도신경을 통한 교리교육이 종교개혁적 신앙의 뿌리를 확립하는데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 2. 기독교 기본교리 교육을 위한 사도신경공부 교재개발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배자를 위한 신앙고백에는 적합하지만 교리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내용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과 관련된 신앙 교육용 교재 가운데 본 교회에 적합하고 필자의 목회 방향에 맞으면서 사도신경의 교리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교재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새로 만들기로 하였다.

### 가. 사도신경에 내포된 교리의 분석과 보완

이를 위해 우선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기본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로 새로운 사도신경 교육 교재는 사도신경에 담겨진 신앙고백의 조항들을 교리적 내용에 맞도록 하나씩 모두 빠짐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46) 장 갈뱅의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교회론의 4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종성, *갈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70.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여 꼭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사도신경 교육 교재는 직답식으로 된 문답식이 아니어야 하며 주입식이거나 정답을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도신경 교육 교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신앙의 조항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스스로 올바른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찾아가고 발견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리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사도신경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조항으로 나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 기독교의 기본교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도신경의 각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고백으로 다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각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 승천과 재림과 심판으로 각 조항들을 세 과로 분류하여 나누어서 다루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은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한 과로 묶어 다루었으며, 죄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을 한 과로 묶음으로써,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갔다.

이런 방법으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조항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리를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 초안을 만들어 보았다.<sup>47)</sup> 그랬더니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너무 간단하였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 조항이 상당히 자세하게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현대 교회는 오순절교회의 영향을 받은 타인지 성령

47) 엘리스 넬슨(C. Ellis Nelson)이 말한 대로 기독교 교육의 “모든 교과 과정은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다”는 지적인 성경공부교재를 만들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arvin Taylor ed., *기독교교육학*, 송광택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2), 270.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는다”는 한 마디뿐이지만 성령의 속성과 사역과 삼위일체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충만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하여 현대 교회의 성령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든 초판을 교회에서 사용하여 강의를 거듭해 가면서 교리를 배우는 교인들의 반응을 분석하였고, 또 본 연구자가 직접 가르치면서 느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계속 수정과 보완을 반복한 결과, 약 3년 여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리교육 교재가 지금의 형태로 완성할 수 있었다.

#### 나. 사도신경 구조분석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기독교 교리의 항목에 맞추어 분류하고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여겨져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sup>48)</sup>

<표 7> 사도신경 구조에 따른 교리 항목 분석 도표

|                     |
|---------------------|
| 1.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
| 전능하신 하나님            |
| 천지의 창조주             |
| 아버지 하나님             |
|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
|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
| 하나님 아들의 유일성         |
| 그리스도의 주되심           |
| 성령 잉태               |
| 동정녀 탄생              |

48) 이종성저, *이종성저작전집 17권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 131-244. 에 나오는 제3부 사도신경 부분의 분석과 해석을 참고하였다.

## (2)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재판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 죽음의 대속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

## (3)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주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 3.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

보혜사 성령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 4. 교회와 구원에 대한 신앙고백

## (1)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

참 교회의 지표

교회의 사명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 (2)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죄 용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몸의 부활

영생

## 제 4 장

### 효과적인 교재 개발의 필요 요소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데는 사도신경의 교리적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에 근거가 되는 성경적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재를 개발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교육학적 바탕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를 배우게 되는 교인들의 삶의 형태와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신앙의 바탕 등을 분석하여 교인들에게 참으로 적합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기독교교육학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브니엘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의 특징과 신앙형태를 분석하고, 더하여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의 바탕이 되는 한국 문화와 종교의 특징도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기독교 교육학적 방향

새로 개발하는 기독교교리 교육용 교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의식 교재로 개발하지만 소그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교재 개발의 방향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적합한지 본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 1. 기독교 교육학적 양육의 관점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볼 때, 본 교재의 목적은 불신자 혹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자의 회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본 교재는 이미 믿고 있는 교인이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 교회는 회심을 목적으로 한 교재로는 기초신앙교육과정으로 “겨자씨 성경공부 과정”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본 교회의 기초신앙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인에게 교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교회에 등록하여 전입하여 들어온 모든 새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필수 과정이 되어야지 선택과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록교인이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육의 과정을 거쳐 가도록 하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육을 위한 새신자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교리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기독교적 삶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49)</sup>

## 2.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개념

본 교재의 교육대상은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성인들이 해당된다. 이 시기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려면 친밀감 형성이 필수적이다.<sup>50)</sup>

공동체의 친밀감 형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고 한다. 신앙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동질성은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신앙고백의 동질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리적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한국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 속에는 유교, 불교, 도교 및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이런 다양한 종교적 관습들이 함께 녹아 있다. 거기에 기독교계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의 신앙을 경험한 교인들을 하나의 교리적 동질성으로 묶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천 년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 신앙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49) 이용남편, *새신자목회(상)*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261.

50) Erik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306. 여기서 친밀감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려 할 만큼 강한 능력이라 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리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3. 대화식 강의를 위한 교재 개발

본 교재는 성경공부 방법론에서 본다면, 소그룹 토의식 성경공부 교재보다는 대화식 교리 강의를 위한 강의용 교재로 개발하였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토의라는 방법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의 그룹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상호 교육과 상호 격려 등의 좋은 결과들이 기대된다. 반면에 강의식 성경공부는 강의자와 수강자 사이에 대화가 어렵고 수강하는 자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본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들의 새신자 교육이 주일날 대예배 후 1시간 내지 길어야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교재는 강의식 성경공부 교재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비록 강의식으로 성경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회집하는 초대형교회가 아니라면 주일날 상설되어 운영하는 새신자 교육은 10명 이내이며 혹 많아야 20명 정도를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경공부를 강의식으로 하더라도 소규모 강의실에서 소그룹 성격으로 진행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자의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소그룹적 분위기를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도 확인한 바이다.

그러므로 본 교재는 원래 강의식 교재로 만들어졌지만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화식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제 2 절 한국의 기독교인의 전통문화적 배경

한국은 역사가 긴 나라다. 그런 만큼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함께 녹아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토대 위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런 요소는 복음 전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가운데 기독교적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사고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함으로 본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

한국은 반만 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유입되고 함께 융합되어 있다. 문화는 항상 종교와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나타난다.<sup>51)</sup>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종교를 살펴보면, 상고시대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샤머니즘과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전래된 도교와 유교와 불교가 있다. 불교는 고려의 국교가 되었고 유교는 조선의 건국이념이 되어 한 때 한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하지만 샤머니즘과 도교는 민간신앙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까지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근세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급속히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동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상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샤머니즘은 민족 고유의 종교사상이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졌고, 불교는 인도에서 유래된 종교사상이요, 유교는 중국에서 유래된 종교사상이지만, 이천 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한국인의 고유 종교라고 불러도 될 만큼 불교와 유교의 사상은 한국인의 사고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하여 기독교는 서양에서 유래된 종교사상이라 이질적 요소가 많고 한국에 전래된 역사도 짧다.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전파되면서 가장 대중적인 종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한국인의 사고와 생활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제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네 가지 중요한 종교들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샤머니즘인데, 길을 나서면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간판들 가운데 흔히 도사, 보살, 장군 등으로 불리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즐비하다. 건축하거나 배를 띄울 때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돼지머리를 잡고 고사를 지내거나 액땜을 위해 부적을 붙인다든지 굿을 하는 등 샤머니즘의 영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유교인데, 한국의 거의 모든 집안은 택일을 하고 궁합을 보며 유교적 제사를 통하여 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이의 차

51) 기독교사상 편집부편, *한국의 문화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7-18.

52) Ibid., 96-97.



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사상이나 효(孝)와 충(忠) 등의 유교사상들이 한국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셋째는 불교인데, 산골짜기 마다 절간이 있고 불교 용어와 개념들이 일상 언어에 녹아 있으며 초파일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같이 이루어지며 윤회사상과 공덕사상 같은 불교 사상이 한국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데, 교회는 대로변은 물론이요 골목이나 상가마다 있으며 어린 시절 혹은 학생시절에 교회학교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 사상들이 한국인의 생각과 사고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마음 속에 녹아 있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과 사상들을 불과 1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따로 논증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 2.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

샤머니즘과 도교 그리고 유교와 불교라는 다양한 종교들에서 유래된 정서와 사고방식들은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 있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관습들이어서, 기독교 교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53)</sup>

### 가. 수동적 신앙 자세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이 교회 안에 적응하고 기존 교인들과 친해지는데 있어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는 사상이다. 욕심을 내지 말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유교사상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한다.

53) 김길수, “효과적인 새신자양육 교재개발-청주중앙교회를 중심으로-”, 10-11. 여기서 초신자들은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종교와 문화 속에서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볼 때는 초신자만 아니라 기존교인들까지 이런 비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초신자와 기존교인들 모두 기독교 교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을 겸양지덕으로 생각하여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로 교회에 나온 교인이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지만 누군가 등록하라고 권유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라고 권하면 등록하고 싶어도 두어 번 거절을 하다가 계속해서 등록하라고 하면 못이기는 척 등록한다.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에도 겸양지덕이라는 사고가 교회 적응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거나 교회 일에 선뜻 나서기를 망설이게 되며 누군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수동적 자세로 기다리게 마련이다. 누구라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 누군가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끝까지 거절하고 억지로 수락해야 마음이 편한 것, 이런 분위기 때문에 등록할 때도 수차례 거둬지는 권유에 못 이겨 등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교인들을 위한 신앙교육 과정도 수차례 권유하고 또 안내위원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끌어 주어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보니 새가족부의 안내위원이 많아야 하는데 매주 등록하는 교인 한 사람마다 이렇게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실제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생활과 사고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생각과 생활관습 등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신규 등록교인들이 비기독교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려면 그만큼 교리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할 것이다.<sup>54)</sup>

#### 나. 가족적 분위기의 역작용과 배타성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가족적 분위기와 가족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 사고라고도 하고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한국인의 가족적 사고의 문제점은 폐쇄

54) 이형기 편, *세계 개혁신학의 신앙고백* (서울: 총회출판국, 1991), 15-16. 여기서 사도신경을 초신자를 위한 기초교리교육용으로 기독교 초기 A.D. 4세기 시대부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적인 가족이기주의라는 점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우리”란 의식은 인간의 본성적 심리에 속하긴 하지만, 먼저 한국 민족의 의식의 뿌리에는 “우리”라는 가족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말하는 “우리”의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할 것이다<sup>55)</sup>. 우리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만을 의미한다. 우리 이웃이라고 할 때는 같은 동네에서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으로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이웃이라도 서로 인사를 터지 않은 사이라면 우리 이웃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비록 같은 아파트에서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마주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기에 인사를 하느냐?” 라는 듯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는 일이 한국에 살면 한두 번은 겪어 보았음직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우리”는 우리로 묶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우리”는 폐쇄적인 가족주의 혹은 폐쇄적인 연고주의 혹은 폐쇄적인 서열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폐쇄적인 가족주의는 우리 가족에 들 수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 이외에 사람은 삼촌이나 사촌 같이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게 만든다.

폐쇄적인 연고주의는 우리 동네 사람 혹은 우리 학교 출신 이외에 사람은 일단 거리를 두게 되지만, 일단 우리 동네 혹은 우리 학교 출신으로 확인 될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가까워지게 된다.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연고적인 이유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교인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폐쇄적인 서열주의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문이라 할지라도, 졸업 기수가 다르면 같은 동창이 되지 못한다. 일 년이라도 차이가 있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는 위아래의 서열이 세워져서 동급생처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는 엄연한 거리가 존재한다. 우리 동네 사람이요, 우리 학교 출신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같은 나이 또래의 동년배와 같이 서로 어울릴 수 없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sup>56)</sup>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나이에 따라 비슷한 연배끼리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55)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38.

56) 임성빈편, *기독교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93-94.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교회 안에도 이런 가족 이기주의적 의식의 연장선에서 폐쇄적 소집단들이 형성되고 있다.<sup>57)</sup>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폐쇄적인 소집단에 집단 이기주의가 결합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쉽사리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개척멤버”라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교회 내에 소위 개척멤버라는 소집단이 폐쇄적 이기주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교인들과 스스로 분리하고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며 여론을 이끌어가고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끌어가려 한다. 이런 경우 회의나 대화는 원칙과 상식을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므로 회의를 통한 논의나 대화가 갈등 해소를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자신이 미처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폐쇄적 소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적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온갖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리 교육용 교재를 통하여 올바른 기독교적 공동체 신앙을 확립할 수 있다면, 비기독교적으로 왜곡된 공동체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 무속신앙의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적 사고

또 하나 한국인의 심성의 뿌리에는 무속신앙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무속신앙은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범세계적인 종교 현상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무속신앙은 수천 년의 한국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으며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무속신앙은 한국인의 토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8)</sup>

57) 최준석, *한국 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9), 11-12. 에서 “프롤로그: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인,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인의 가족주의는 국가와 직장 및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회조직을 가족의 연장으로 파악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58) 김기홍, “기독교교리 교육을 통한 진정한 교회성숙-용암 교회를 중심으로-”, 62-63.

무속의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하느냐에 따라 화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행을 거두고 복을 주기도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무속의 신들의 보상은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굿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여 귀신을 잘 달래 주느냐에 달렸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샤머니즘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한국인의 무속신앙도 역시 철저히 기복적이다.

한국인의 무속신앙이 다른 나라의 샤머니즘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 한국의 무속신앙은 기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현실주의적이란 점이다. 크게 굿을 하고 잘 대접하여 귀신을 달래주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평소에 그 귀신을 섬기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귀신을 위하여 굿을 한 것은 오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기복적이며 현세주의적인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적 책임이나 개인의 윤리적 의무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속신앙에 죄의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도 죄의식 없이 행할 수 있으며,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이란 관심 밖이 되고 만다.<sup>59)</sup>

이렇게 한국인의 종교 심성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적 사고는 기독교의 신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는 매우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이지만 무속신앙에는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 계명이 없다. 반면에 기독교는 십계명을 지키는 윤리적 삶을 중요시 한다. 무속신앙에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혹은 빛으로서 세상의 부조리를 멀리하고 세상의 어두운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기독교 신앙에는 무속신앙의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사회적 책임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듣기 어려우며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59)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78), 271.

초점을 맞춘 기복주의적 설교가 대부분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 교인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와서 복을 빌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현세주의적 신앙행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어느새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주의 종교화 되었고, 현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에서 이런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적 신앙의 문제점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라고 했다. 바로 이런 점이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때,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기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의식이 있다면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유익보다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등해소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한다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사회적으로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임을 깨닫고 파국으로 향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더 이상 윤리적 판단이나 사회적 책임은 아무런 호소력이 없어지고 만다. 오직 이기적인 소집단에 속한 “우리들”의 입장만이 중요하게 되어 더 이상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타협이나 갈등해소는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성경공부를 참여하고 교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일은 단순히 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 지식을 주입시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녹아 있는 한국인의 고유한 가치관과 사고방식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기독교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교리 교육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리 교육용 교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 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왜곡 현상

이런 전통신앙 및 유교나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거나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왜곡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음적 구원을 불교의 공덕사상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공덕을 쌓아야 하며, 기도가 응답되려면 정성을 다해야 하며, 죽어서 천국에 가 봐야 구원받을지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해도 자신의 사고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유교의 장유유서(長幼有序) 사상은 은사 중심의 교회 봉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유교적 충효로 바꾸어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장로나 권사, 집사 선거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아야 하며 젊은 사람은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치관과 사고를 가진 교인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던 성경의 직분자 선택의 기준은 직분자 선거 때마다 거의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며, 유교적 장유유서 사상이 직분자 선택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sup>60)</sup>

또한 유교적 충효(忠孝)사상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내 몸을 주신 부모에 대한 섬김이라고 여긴다. 유교에서 자식은 부모의 일부이다.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도 부모에 대한 효라는 선상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순종에서 출발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교의 충효사상과 기독교의 부모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외적 행동은 같아 보이나 마음 속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 사회의 인본주의 사고와 민주주의적 사고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힌 현대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교회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사고가 진리라고 여긴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왕이신 주님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

60)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94), 30-47.

서구의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본주의적 사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고에 젖은 사람은 이웃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부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박애주의적 인류애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것과는 근본 원리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 때 이런 왜곡된 신앙이나 성경적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줌으로써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가치관을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사도신경 교리 교육이 절실한 이유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자신이 암송할 줄 아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사실 사도신경에 있는 기독교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 1.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 부족

사도신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외워서 암송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신앙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라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독교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도신경의 내용을 단어풀이 정도로



이해할 뿐 성경적으로 어떤 배경과 내용에서 유래된 신앙고백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한국의 전통 무속적 사고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개념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빌라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때로 어떤 사람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라고 했으며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다.

특히,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이 성령을 믿는다는 단 한 마디뿐이며 성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신앙고백적 내용도 없기 때문에 막연히 성령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도신경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사도신경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만으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공교회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기독교 교인은 거의 없다. 이런 형편이니 등록교인이 초신자인 경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온 기존교인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등록교인만 아니라 기존교인들까지 사도신경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도신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우는 교인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도신경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든다면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기독교의 기본교리에 대한 무지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경공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교인들은 등

록교인이든 기존교인이든 사실 사도신경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다. 모두들 성경공부를 많이 했다지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지도 못한 결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은 기독교 소요리 문답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세례 교육도 교회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며, 요리문답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런 연유로 하여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의 연륜과 관계없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현재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부족한 교리적 이해를 상당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오해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무지한 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정체성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나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겉모습만 다를 뿐 믿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란 모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도 모두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일이다.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안다면 기독교의 정체성도 분명해질 것이고 이런 종교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부족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도 혼란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이런 교인은 교회 밖 사회생활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회에 기독교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만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직업관이나 재물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사고에서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거의 없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은 생계수단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직업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포함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침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어 타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침으로 기독교적인 올바른 구원 이해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인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 4. 이단의 유혹에 취약

기독교 교리에 무지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난 백년의 역사 속에 왜 그리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였는가? 더 안타까운 일은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면 왜 그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어 갔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단의 유혹에 대하여 취약한 가장 큰 원인은 교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임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과거 크게 영향을 끼친 부흥운동들이 쉽사리 이단으로 전락한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도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영도 목사의 부흥운동이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박태선 장로의 부흥운동이 이단으로 타락해버린 일 등이 그런 실례가 될 것이다. 이뿐 아니다.

구원과 이단의 경우 평소에 교인들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론에 대한 교리

61)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기독교와 문화*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40-41.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문화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적 이해만 제대로 잘 가르쳤어도 그런 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도 구원과 이단의 구원론적 사고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도 교리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최근에 신천지 이단 역시 구원과 계통의 이단이라는 점도 현재 한국 교회가 교리 교육에 힘쓰지 않던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의 이런 약점을 악용하여 스스로 성경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의 교리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이룩하는 일이 더 이상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적 신앙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 제 4 절 사도신경 교리교육의 목표

기독교의 교리는 참으로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있는 불과 몇 가지 안 되는 극히 제한된 교리 조항만으로 과연 사람들이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비록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는 극히 제한된 적은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교리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가르쳐 보면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 1. 개인적인 구원 간증과 구원의 확신

등록교인들에게 기초신앙교육을 위하여 교리교육을 하게 됨으로 이룩하려는 신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sup>62)</sup> 많은 경우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신비적이고 환

64) 이용남편, *새신자목회(상)*, 269-270.

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sup>63)</sup>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다. 요한복음 6장 47-4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신비적 체험에 대한 신뢰를 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중요한 신앙 조항들을 집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가질 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 교육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교리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신앙교육의 출발점부터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이 될 것이다.<sup>64)</sup>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간증에 의하여 더 확실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열매가 된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마태복음 10:32).”라고 하였으며, 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르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증도 포함된다.

그래서 브니엘교회에서는 세례를 할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구원 간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간증이 부담이 되어 세례받기를 꺼리는 사람도 가끔 있

63)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말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64) J. Edward Hakes가 주장한 성경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같은 복음주의적 확신을 본 교재의 교육적 목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Marvin Taylor 편저, 기독교 교육학, 송광택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2), 540-542.

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일 뿐이며 대부분은 구원간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구원간증을 준비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신비적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서 세례 받을 때 구원간증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현재 브니엘교회에서는 기초신앙교육과 세례 교육을 통하여 성경과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구원 간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초신앙교육과 사도신경 교육을 통한 교리교육의 성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속의 교리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함으로 성경에 바탕을 둔 복음적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해 갈 수 있었다.

## 2.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확립

기초신앙교육과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기초교리 교육을 받음으로 모든 일반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죄짓지 못하게 창조하지 못했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짓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초신자들만 아니라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들조차 가지고 있음을 성경공부를 가르시치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의문들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신앙에 결핍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결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데서 가장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구원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신앙에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어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면 될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는 것은 속 좁은 일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상반되는 것 같고,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성품이나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사건에 의하여 해소가 되고 화해가 된다는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의 교육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들을 다루어줄 수 있도록 하여 신앙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 3.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 이해

“교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흔히 잘못된 믿음은 교회를 믿는 것이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이 역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 잘못된 신앙이다. 사도신경과 같은 기본적인 교리만 제대로 배워도 이런 오해는 없을 것이다.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신앙의 조항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공교회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과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로마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 가운데 교회관의 차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로마천주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요, 지금도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온전하며 완성된 계시라고 믿고 있다. 교회가 계시의 통로인지 성경이 계시의 통로인지 신적 계시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로마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sup>65)</sup>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들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혼란을 막아주고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키워준다면, 교인들의 신앙성장과 함께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로마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였다.

#### 4.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고의 기초 형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이고 어우러진 토속신앙과 사상들이 녹아 있다. 여기에는 무속신앙과 도교와 불교와 유교에서 유래된 사상들 그리고 근세 와서 들어온 기독교와 현대 서양의 인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고들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인의 사고 속에는 이런 토속종교와 사상들에서 유래한 가족주의와 현세적 기복주의 그리고 장유유서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등등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교인들까지 이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성경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변화되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인 사고의 기초들을

65) James D. Smart,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171-179. 저자는 성서와 교회는 둘 다 계시의 본질을 이루고 있지만, 교회는 성서를 통하여 그 시대를 위한 계시를 끊임없이 들음으로써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서 없이 교회는 없으며 성서 없이 계시도 없다고 주장한다.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66)</sup> 이런 일을 위하여 새가족을 위한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을 포함한 기초신앙교육은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에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은 물론이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sup>67)</sup>

##### 5. 이단적 교리의 분별력 양성

기초신앙교육 과정이 모두 유용하겠지만,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초교리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심어주는 일이다.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는 이단적 교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함으로 이단의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천지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큰 유혹거리가 되고 있지만,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장로교회는 다른 교단보다 성경 중심적이고 말씀을 가르치며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로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교인들도 신천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만 아니라 이단의 대처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교리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초교리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교리 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려고 하였다.

66) 목만수, *선교 신학 문화*, 139.와 156-157.

67) 양승훈, *기독교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1999), 44.

## 제 5 장

### 사도신경 공부 교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구성과 내용

지금까지 앞 장에서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필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도신경 공부 교재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구성과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자는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교리들을 신학적 이해가 거의 없는 교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심하였으며, 성경을 이해함으로 교리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문점들에 착안하여 각 문제들을 구성하였으며, 교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 답변을 발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요리문답식 단답형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교리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성경공부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려고 하였다.

본 교재는 교리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한 가지 교리를 배운 다음 가능한 그 교리와 관련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1 절 사도신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적 신앙의 중요성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시간에 모두가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왜 사도신경을 외워야 하는지?" 궁금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왜 외우는지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첫째 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이며 사도신경이 기독교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68)</sup>

## 1. 첫째 주-1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 가. 신앙의 법칙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먼저 교통법규의 예를 들었다. 교통법규가 위험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듯이 사도신경은 잘못된 이단이나 그릇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의 법칙임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사도신경은 서로 다른 거의 모든 교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신앙고백이며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이라는 점을 가르침으로 사도신경의 정통성과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진리의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은 대부분 진리의 기준을 성경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이전에 세상에서 흔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과 교리의 진리성에 대한 평가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가르침을 따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독교 신앙은 천사같이 착한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요, 천사같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준으로 따라야 함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 구태여 사도신경의 교리적 가르침대로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거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 구원받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신경의 교리대로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차이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68) Ray Pritchard, *사도신경풀이-내가 믿사오며*, 박세혁 옮김 (서울: 사랑플러스, 2007), 21-25.

사도신경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교리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교리적 가르침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파멸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제 이후로 사도신경적 교리에 어긋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든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경계해야 함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사도신경의 교리에 어긋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실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적 신앙을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신앙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야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네 가지 신앙고백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구분하여 사도신경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사도신경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사도신경대로 믿듯이 남에게 설명할 때도 기독교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고 답변해줄 수 있음을 깨달음으로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하는 기본 교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사도신경은 신앙고백이므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을 네 단락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함으로 사도신경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고백하며, 나아가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와 영생과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구원은 사도신경의 교리대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됨을 배

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신경의 구성을 파악한 다음,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이라는 점에서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해야 올바른 신앙고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에는 인간중심적인 믿음이나 세상적인 믿음이 혼합된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신앙은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복음서에 나오는 인간중심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대표적 인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예를 들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잘못된 신앙에 대비하여 올바른 신앙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약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이원론적 분리를 경계하고 믿음은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신앙이 견고하게 서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함을 설명하고 이런 신앙이 바로 사도신경적인 교리에 맞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2.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소개

“1과 -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교리사적으로 사도신경과 함께 가장 오래 된 신앙고백이며 사도신경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소개하였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AD 381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동방정교회에서 예배 때 공식신조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사도신경이 교회의 유일한 신앙고백이 아니며 교리는 다양한 표현과 풍성한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69)</sup> 여기서 가르치는 이의 재량에 따라 소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69)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한글 번역문은 이장식 편역, *기독교신조사 제I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0), 10. 에 있는 것을 옮겼음.

마지막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전문을 소개함으로 사도신경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보게 하고,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 내용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어떻게 달리 표현되는지를 관찰한다든지 혹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한 다음, 이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사도신경과 다르게 표현된 교리적 표현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된 이유를 교리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면 교인들의 신앙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하여 믿는다는 한 마디 고백뿐이지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의 부여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하고 성령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유익할 것이다.

## 제 2 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이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초신자를 위한 기초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이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둘째 주 - 2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에 대한 생각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잘못 되어 있으며,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기복적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sup>70)</sup> 그러므로 본 교재는 참 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게 하고<sup>71)</sup>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70) 로마서 1:19-23에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들의 신지식과 이해는 결코 올바른 참 신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1) John Calvin은 *기독교강요 1권 1부 6장*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 필요하다는 주제를 다루었다.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 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의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죄와 불의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이런 의문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런 의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아브라함과 욥의 신앙고백적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지자 스바냐의 고백적 찬양을 통하여 세상의 상황이나 나의 개인적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를 위해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창조주 하나님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일 것이다. 현대인들의 생각에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창조는 신화적이며 비과학적 사상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현존하는 우주와 자연만물과 모든 생물들이 진화의 결과인지 창조의 결과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본 교재의 목적이 아니다. 본 교재는 성경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창조의 능력과 그 범위 그리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본 교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창조의 능력과 범위와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발명과 창작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온 우주의 거대한 규모와 너무나 다양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만물들의 창조 결과를 살펴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

신 세상 모든 창조물의 영광스러움과 엄청난 규모와 다양함과 정교함을 보면서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과 사람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영적인 것까지 모두 만드셨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졌으며,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가르치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그 의미를 설명해 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만 가지 부속이 들어가며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뛰어난 설계자들과 정교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세상 창조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며 그 입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창조교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능력과 진실함을 증거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소리 없는 증언이며 태초로부터 이제까지 전해지고 있는 참 진리의 증거임을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증언의 소리를 듣고 이 진리를 보고 깨달으려면 믿음의 눈과 귀를 가져야함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고 이와 비교하여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도 당연히 목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교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게 하였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의 창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에게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



음을 배우면서 창조교리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에게 육체와 영혼과 생명을 주신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sup>72)</sup>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불순종과 거역이며, 우리의 삶과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2.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내용에 맞추어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도 연결하여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2)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人子)-하나님의 아들, 최승근 역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2), 204-205.

본 교재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지만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사도신경에 고백된 불과 세 가지 속성보다 훨씬 많이 있다. 다양한 여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세상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세 가지 속성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과 전지함과 전능함 그리고 거룩함과 은혜로우심과 사랑과 신실하심 등 여러 가지가 있다.<sup>73)</sup> 가르치는 이의 의도와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상 창조사역 하나뿐이다. 그밖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존사역이나 구원사역이나 심판사역 등이 있겠지만 이 과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다음 과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다른 교리들과 연관 지어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본 교재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 과에서 다루지 못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연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교재의 내용에 맞추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이 과에서 다 가르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제 3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4)</sup> 복음서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출발하기 보다는 나사

73)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자연적 속성으로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불변성, 불가시성, 불가해성 등을 들 수 있고, 도덕적 속성으로는 지혜, 인자함, 성결, 정의, 자비, 진리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교재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내포된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74) 예수는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으나, 교회의 형성은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 초기 기독교는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신학적 통찰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416.

렛 출신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sup>75)</sup>

그런 점에서 본 교제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의 순서를 따라가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나를 살펴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 셋째 주-3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으며, 고향 사람들은 그가 자란 과정과 가족들 그리고 그가 살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sup>76)</sup> 살펴보면서 예수의 인성에서 출발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고백된 과정을 따라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초기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여 천국복음을 전하였고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손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에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었다. 고향사람들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가 자라온 모습과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확고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그를 만나보고 그의 말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 교제는 복음서에

75)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신앙과 선포는 흔히 예수의 수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200-201. 그리고 H. Conzelman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97. 참조.

76) 마가복음 6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22-2절4에 예수의 고향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음을 알 수 있다.

서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이 말한 “와서 보라”는 권고와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  
의 권능을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의 예수에 대한 두려움과 쫓겨나  
가면서 인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모든 고백과 인정은 비공식적인 것이요  
개인적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의 선지자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인 선포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증언한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 복음서를  
살펴볼 때,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는 예수 이외에 역사상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77)</sup>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평신도 가운데 더러 신학적 논쟁점이 되는 이론을 알고 질  
문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마지막 문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답변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본 교재는 당시 유대의  
최고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증언하신 “내가 그니라”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78)</sup>

####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구원  
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이천 년 전이나 이

77) 한국기독교학회편,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64.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정신’(Universal spirit)이 나타나  
고 있으며, 나사렛 예수도 우주적 그리스도의 여러 역사적 발현들 중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교리라 하겠다.

78)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人子)-하나님의 아들, 23-27.

천 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성경의 평가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긴다.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조선 건국의 걸림돌로 여기고 이방원은 그를 죽였지만,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된 다음 결국 정몽주를 충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비록 세상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였으며(롬 1:4)<sup>79)</sup> 세상 권세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행 2:47, 빌2:9). 중요한 요점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인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물으면서 동시에 제자들 자신의 고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크게 칭찬하였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후대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주장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야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수가성 여자의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구원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배척은 이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천 년 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80)</sup>

그리고 메시야와 그리스도란 용어에 대하여 사람들이 종종 질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놓았으며, 메시야 즉,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주어지는 권세가

79)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홍성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168-178.

80)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65-66.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것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임<sup>81)</sup>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고대의 모든 민족의 영웅들에게는 신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신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설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인에게나 고대인에게나 동정녀 탄생이란 상식 밖의 사건이며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녀와 약혼한 요셉도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동정녀 잉태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나?”가 아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요셉에게 예고한 천사의 예언적 선포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흔히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의 방법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흠 없는 속죄 제물로 준비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82)</sup>

마지막으로, 죄 없는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살펴볼 수 있

81)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82) Dietrich Bonhoeffer, 그리스도론,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47-152. 여기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의 속죄의 논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도록 하였다.

## 2. 넷째 주-4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흔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억울하다는 말이 있다. 자칫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도 억울한 죽음으로 치부할 우려가 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모두 재판을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빌라도 총독의 무책임하고 불의한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가. 빌라도 총독의 부당한 재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은 그가 체포된 장소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부터 드러난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다 잡힌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당당히 불잡혀 갓으며 비록 대제사장이 주제하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서 부정하고 거짓된 증거와 편협한 판결로 사형이 결정되었지만,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의 심문과정에서 둘 다 동일하게 예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경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고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강경하게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허락한 것이므로 예수의 편을 들어준 빌라도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교리와 상관없지만 여기서 다루는 나머지 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본 교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함으로 빌라도 총독이 왜 사도신경에서 그토록 저주스런 이름으로 고백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어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재판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딸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인정한 것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되고 사형의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로마 식민지인 당

시 유대사회에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판결을 얻어야 하기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보낸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므로 헤롯왕에게 보내어 심문하게 하였다. 결과는 헤롯왕이나 빌라도까지 모두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결코 사형당할 죄목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죄를 선언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빌라도는 자신이 심문하고 판결한 선언과 달리 예수를 무죄석방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죄 없는 예수에게 채찍질 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만다. 도대체 빌라도 총독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의 요구에 왜 그토록 힘없이 굴복하여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고 말았는가?

빌라도는 자신을 왕이라고 한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말에 놀란다. 빌라도는 유대의 젊은이 하나 때문에 자신이 반역자로 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준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무리의 과격하고 압력적인 태도에 굴복하고 만다.<sup>83)</sup> 빌라도는 식민지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민란이 일어났다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지위와 출세에 걸림돌이 될 예수를 위하여 괜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빌라도 총독의 이런 비열하고도 이기적이며 세상 권세와 출세를 열망하는 탐욕적 마음이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도록 만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빌라도처럼 세상과 거짓에 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84)</sup>

#### 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우리 신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83) 김세윤, *그리스도와 가이사*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91.

84)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이며, 이런 생각과 태도가 우리를 세상과 사탄의 거짓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첫 무죄선언 이후 채찍질 형에 처해지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힘이 빠져 쓰러진다. 로마군병은 예수 대신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여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를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하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모두들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살펴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날 한낮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였으며, 약 세 시간 동안 계속된 어두움의 마지막 무렵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외침과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모습을 살펴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온전한 속죄가 되었음<sup>85)</sup>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 “다 이루었다”고 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선언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통일교 이단에서 이천 년 전 예수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구원하지 못하였기에 재림 예수인 문선명이 와서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가르침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면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요 육체까지 모두 온전히 구원하였음을 선언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사건이며,(히 10:20)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임을(엡 2:14)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교재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85)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453-455.

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선언하였으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희생하신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86)</sup>

예수 그리스도는 오후 3시경 이미 숨을 거두지만 로마 군병들은 시신을 내리기 전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던 두 강도는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뼈를 꺾어 죽인다. 이렇게 하여 예수는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복음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하여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양의 뼈를 꺾지 않음으로 온전한 유월절 희생제물이 됨을 보여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유일한 분이심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내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생과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여 죽었으며, 사형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꿰뚫어 심장에 고여 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

86)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54-55.

편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온전히 죽었으며 심장이 창에 꿰뚫렸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 결코 다시 소생할 수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과학적 비밀이나 의학적인 불가사의한 과정을 넘어서 구체적인 부활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그의 능력 안에 맡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본 교재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예수의 부활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발견되고 또 확인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증거와 증언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거짓 증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예수의 부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한 것은 예수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였으며, 이를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을 동원하여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인봉하고 철저히 경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의 시신을 장례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며, 자신을 위한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였다. 장례 후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로마 병정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엎드렸는데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굴러 열어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여자들이 보았다. 천사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과정을 잘 살펴봄으로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알게 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이 교재의 목적이 아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천사들의 활약으로 예수의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현장에서 천사로부터 직접 듣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연약한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때 큰 지진으로 로마 병정마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약한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상황에

서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를 추종하며 따르던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이 달려와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도 여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고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조작할 능력이냐 의욕이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여기며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사건들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생각했다. 요즘도 영의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며 살과 뼈가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인 몸임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였는데, 승천하기 전 사십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며 보장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87)</sup>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종말론적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실존적인 의미를 주고 있

87)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46-47.

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롬 6: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3. 다섯째 주 - 5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간다는 것은 날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갓 꿈일 뿐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두어 번 나온다.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 경우 모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며, 세 사람 모두 육체를 가진 몸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승천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함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가.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들려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차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준다는 것이다.(행 1:11) 여기서 예수의 재림을 빙자한 모든 이단들의 거짓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같지 않은 재림은 모두 가짜요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어떻게 되셨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 우편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에 꼭 가야만 했는

나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 했더라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며, 그 이유는 그 분이 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하늘에 가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에 계신 것 보다는 영으로서 모든 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더 유익이라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칫 그 나라는 영원한 복락과 안식의 나라이니 주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 복락과 안식을 누리며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였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거처가 모두 완성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음(요 14:2)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심을(롬 8:34), 깨닫게 함으로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연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아픔과 필요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주실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체험하였기에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분이므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그리스도의 재림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 같다. 더구나 사이비 이단들의 재림 사기극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신앙적인 상처를 받은 후유증도 남아있을 것이다. 과연 재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재림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 재림에 속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몰라서 생긴 혼란이다. 그래서 본 교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는 몰래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재림하며,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없는 재림은 가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것은 재림의 모습보다는 재림 날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단적인 거짓에 자주 속는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언제 재림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확인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up>88)</sup>

그러면 막연히 기다리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는 알려 주었다. 첫째 징조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며 그 다음 징조는 난리의 연속과 기근과 지진의 빈발이 될 것이며, 마지막 징조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서로 미워하여 고발하고 불법이 성하며,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였다.(마 24:3-14)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당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런 거짓과 악함을 볼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여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고 천국을 건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

88) 김세윤, *예수와 바울*, 323-325.

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으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의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내버려두느냐는 항변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느냐는 항변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야 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볼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다.<sup>89)</sup> 왜냐하면 세상의 악을 불평하는 것은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라 한다.(시 37:8)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함을 불평하다가 같이 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공의는 어떻게 세우란 말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합당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에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만 아니라, 세상 끝 날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마지막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기준으로 행해지는가? 첫째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선악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9절 말씀에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심판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며 이때 심판의 기준은 믿음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두 가지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선악에 의한 행위의 심판과

89) 시편 37:1,7에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믿음의 심판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심판이 마지막 때에 같이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문제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은밀한 일까지 다 아시는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생전에 행한 모든 행위를 선악의 기준으로 심판하면 어떤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90)</sup>

그렇다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선악의 행위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20절에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복종하고 쫓겨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상도 가져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4 절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표현된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은 너무나 짧고 간략하다.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전부다. 하지만 본 교재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

90) Philip Edgcumbe Hughes, *요한계시록*,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4), 335-336.

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 여섯 주 - 6과 성령 하나님

### 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는 초신자는 물론이요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91)</sup>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를 삼위라고 하며 “위”라는 말은 왕과 같이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앉는 자리를 높여 일컫는 말이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세 분의 구별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에서는 오해를 쉽게 불러오거나 참된 삼위일체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비신학적인 삼위일체 설명이나 비유적 설명은 일체 배제하였다. 대신에 좀 어렵긴 하지만 신학적 설명을 그대로 옮겨 설명하도록 하였다. 세 분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결코 혼동되지 않으며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히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그래도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본 결과, 아무리 초신자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시기 때문에 삼

91)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신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신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어디서 가르쳐야 하는냐는 문제에서 17세기의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서에는 제1장 성서에 대한 신앙고백 바로 다음에 제2장으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항목을 다루고 있지만, 현대의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책이라 할 수 있는 *거리의 신학*(이종성 저)에서 성령 항목에 삼위일체를 논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성, *거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13-121.

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논리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면 대체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제시된 진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적 체험에서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명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 나. 보혜사 성령

성령에 대하여 배우는 첫 문제는 성령의 명칭에 관한 것들이다. 성령이란 이름의 뜻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명칭들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해주신 성령의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이다(요한복음 14:16, 26). 보혜사란 명칭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혜사란 “우리는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임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sup>92)</sup>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자주 사용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분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성경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였음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점이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훨씬 뛰어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며,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선지자 요엘의 성령에 대한 예언(요엘 2:28-29)을 같이

92) 이종성, *이종성저작전집 5권 성령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171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종종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근거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과 달리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과 지금이 성령의 시대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지 못한 남은 사역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이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며, 이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의 다양한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구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3)</sup>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

93)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296-301.

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결코 회개한 공로나 세례라는 의식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자칫 성령을 나의 경건의 결과로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지만, 사역의 차이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령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고,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 한다.<sup>94)</sup>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가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성령임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거듭남이란 신비적 체험을 해야 하는 말로 이해한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이 행하는 신비로운 사역으로 결코 육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95)</sup>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전도하게 하는 일이다. 흔히 전도는 개인적인 능력이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에도 성공적인 전도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도가 성령의 사역이라면 자칫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94) Hans-Joachim Kraus, 조직신학, 박재형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36-38.

95) 이종성, 이종성저작전집 5권 성령론, 34-38.

수 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복음의 증거를 깨닫게 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결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 다니고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은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면 웬지 신비로운 느낌부터 받는다. 그래서 나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요원한 이야기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께서 주시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2.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은 교리라기보다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 사도신경보다 성령에 대하여 훨씬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도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질문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배우는 과목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간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up>96)</sup>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구원 받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보면 자꾸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나는 역시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96) 브니엘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공부 과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겨자씨성경공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교재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한 과를 할애하여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내 신앙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97)</sup>

사람이 선행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아 내가 의로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애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성령이 주는 희락은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여 내 마음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 띄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5 절 교회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97) Hans-Joachim Kraus, *조직신학*, 386-389.

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여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지막 신앙고백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함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교회를 통하여 받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교회는 자세히 다루었으나, 성도의 교제는 비교적 간략히 다루었다. 그 이유는 현재 교계에서 사용하는 많은 성경공부 교재들이 성도의 교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를 자세히 배울 기회는 많은 반면에 교회론을 다루는 교재는 부족하여 교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적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어 이렇게 편성하였다.

## 1. 일곱째 주 - 7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예배를 하는 신성한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 모이는 곳이다. 이 과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와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성경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비유적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거룩한 교회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한다. 공교회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독교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를 믿으며 공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다.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적 고백의 핵심은 이 두 가지 고



백 즉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과 일반적인 공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교회라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교회가 왜 거룩한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를 보니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 교회 다니는 부족한 사람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해 보이는 일들에 실망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하여 회의론을 가지게 된다. 이런 오해들은 교회가 왜 거룩한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교회가 거룩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거나 교회의 제도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사람이나 제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의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동거와 같이 보일 수 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한 교회에 합당한 거룩한 교인으로 만드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10-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공교회

교회는 이천 년의 역사 동안 공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해 왔다. 일반적인 공교회

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특별한 교회만 거룩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아주 큰 교회나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나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특별한 교회만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시시해 보이고 온전하지 못하며 흠이 많아 보이는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구원은 교회의 크기나 수준 혹은 건물이나 분위기에 달려 있지 않다. 구원은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결정될 뿐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98)</sup>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도무지 거룩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21-2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성전이다.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시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다. 모든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실의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교회는 미완성이며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는 거룩하며 구원이 있음을 여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참 교회의 지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모두 거룩하며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단점과 허물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이들 교회는 모두 불완전하며 한두 가지 이상의 잘못으로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는다. 심지어 라오디게아교회는

98) Ray Pritchard, *사도신경풀이-내가 믿사오며*, 241-245.

자기만족과 교만함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타락한 교회임에도 주님은 라오디게 아교회를 버리지 않으며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금촛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공교회는 거룩하며 공교회에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도 구원이 있는가? 분명히 아니다. 이단교회나 사이비교회는 공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는 거룩하지도 않으며 구원도 없다.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종교개혁가요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장 칼뱅은 참 교회의 지표로 두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그의 대표적 저서인 *기독교강요*에 의하면, 참 교회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sup>99)</sup>라고 하였다.

온전한 성례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잔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 하였다.<sup>100)</sup> 여기서 평신도에게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는 로마천주교회와 떡과 잔을 모든 교인에게 나누어주는 개신교회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모든 교인들을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 교회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101)</sup>

#### 라. 교회의 사명과 하나됨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주

99) 이종성, *칼빈*, 140.에서 재인용

100) Donald K. McKim ed., *칼빈 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328-329.

10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권 교회론 2. 4.파 8. 1.파 8. 8.파 8. 10.* 참조.

어진다. 교회는 거짓과 죄악 가득하여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거짓되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만한 진리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세상의 거짓과 싸우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킴으로 교회의 사명은 완성될 수 있음을 살펴보게 하였고, 교회의 능력은 복음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한 말씀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마치 논에 저수지의 물을 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저장하는 저수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구원과 사랑에 목마른 세상에 생명의 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방법론에서 교회는 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교회 연합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 교회들을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교인을 모으려고 애쓴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교회를 조직과 제도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며, 영적으로 보아야 함을<sup>102)</sup>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에베소서 2장 13-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한다. 서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까워졌다고 한다. 모든 교회는 원래 하나이며, 모든 교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둘이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혹은 침례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102) Ray Pritchard, *사도신경풀이-내가 믿사오며*, 248-250.

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사람은 제도와 조직으로 교회를 나누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으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초점은 교회의 하나 됨은 교파나 교단의 연합보다는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하나 됨에 있다. 교단 사이의 다툼보다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사이의 불화나 다툼이 현실적으로 더 피부와 와 닿는 문제이다. 교인들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2-25절 말씀을 통해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욱 요긴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름답지 못한 몸의 지체에 장식품을 더하여 주듯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해주시어 여러 지체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심으로 교회의 화목과 하나 됨을 이루도록 하셨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열매들

사람은 서로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교제하는 데 있으며, 좋은 교회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103)</sup>

더 나아가서 예배의 목적도 교제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함으로 예배가 끝난다. 예배 축도문에서 보듯이 예배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이며<sup>104)</sup>, 성도의 교제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제를 한다고 하면 우선 술 한 잔 부터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성령의 일이므로 세상 교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103) Hans-Joachim Kraus, *조직신학*, 452-462.

104) 루이스 셰릴이 말했듯이,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참여하는 교제의 공동체이며, 예배의 축도 역시 교제(코이노니아)란 말에 함축되어 있으며, 예배에서 확인된다는 말에 공감한다. Lewis Joseph Sherrill, *탄압의 기독교 교육*. 김재은, 장기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77-78.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일이며 성령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으며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고 거룩한 떡을 먹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배우고 계시와 방언의 은사를 행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배 전체가 성도의 교제임을 배울 수 있다.<sup>105)</sup>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며, 은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교회만 아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과 사마리아의 교회가 하나 같이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하여 평안을 이루었으며 이로써 교회는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도 성장하고 성령의 위로도 충만해지면서 마침내 교회의 수적 증가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성도의 교제가 전도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으며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재물을 나누어주고 함께 사용하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한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곧 가난한 자의 구제였으며 서로 돕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2. 여덟째 주 - 8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가난한 부부의 선물 이야기는 선물의 의미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에 더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이 이야기는 선물에 담겨진 준비한 이의 마음은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믿는 자마다 한 아름씩 안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5) Lewis Joseph Sherrill, *만남의 기독교 교육*. 77-78.

게 주시는 선물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이 과의 목적이다.

#### 가. 죄 용서의 놀라운 선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롬 3:23) 그런데 천국에 죄인은 갈 수 없고 의인만 갈 수 있다. 죄인이 갈 곳은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떻게 죄 용서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밝히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면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였다. 그래서 속죄의 피가 있어야 죄용서가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죄를 용서해주면 안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죄 값으로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임을 분명히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106)</sup>

죄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니 죽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희생할 제물을 준비하여 대속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레위기 16장 19-2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온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 광야로 쫓아 보내어 거기서 죽게 한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물로 희생되는 두 마리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죽여서 피를 흘려 속죄하는 한 마리 염소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다른 한 마리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광

106) Philip Edgcumbe Hughes, 반즈성경주석 히브리서(下), 이남종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1), 518-520.

야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무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지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을 염소에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서 모든 죄를 염소에 머리에 두게 한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 속죄제사에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희생된 제물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구약의 속죄제사를 공부할 때,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레위기 16장에서 보듯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를 행하였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온전한 효과가 발휘되어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해마다 반복하여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해마다 짐승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보면, 구약시대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게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의 목적은 죄용서가 아니라 회개인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제물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온전한 죄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원한 속죄제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한 번의 희생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결하여 다시는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sup>107)</sup>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107) Philip Edgcumbe Hughes, *반즈성경주석 히브리서(下)*, 50-551.



로 죄와 흠이 없는 유일한 참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임을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한 속죄 제사이므로 다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108)</sup>

그러나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지 않으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일이 죄 고백을 통한 회개다. 늘 회개함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옮기게 되고 온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회적이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우리의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보건데 신천지 이단에서 가르치는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으로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천지 이단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 다.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는가? 시편 103편 13-14절에 우리를 흠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진토와 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온전히 용서해주시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으며, 또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였다.

108)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64-67.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보고 그 정도에 맞추어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비록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온전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온전한 죄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용서할 때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태도가 아니라 친절한 태도로 해야 진실한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6장 27-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몸의 부활 - 죽은 자의 부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내세에 대한 오해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생각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사도신경적인 믿음은 영혼의 부활이나 영혼의 영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몸의 영생을 믿는 것이며, 기독교는 죽어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소생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다. 이런 소생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생은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소생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의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며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으며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임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지만 죽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참 사람이기에 이루어진 일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놀라운 사건임을 깨닫게 하고(고전 15:16),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며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부활의 몸과 부활의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 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은 분명 차이가 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고 했다. 부활의 몸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영생의 존재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긴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 말씀으로 해답을 찾도록 하였다. 여기에 보면, 자그만 씨를 심으면 다른 형태의 식물이 나오고 다른 모양의 열매가 나오듯이 죽음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하여, 우리의 부활도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죄인으로 심지만 의인으로 부활하며 병들 수도 있는 약한 몸으로 죽어 땅에 묻히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병들지도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의 존재요 약한 현세의 몸과 영생의 존재로 부활하는 내세의 강한 몸을 구별하여 전자는 육의 몸이요 후자는 영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배우되, 여기서 육과 영이란 말이 인간의 구성요소를 구별하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죽음의 존재인 이 세상에 속한 육체와 영생의 존재로서 부활한 육체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일 뿐임을 설명해주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교인들은 자칫 영의 몸이라고 하면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하여 공부하면 흔히 질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후로 이천 년이 지났지만 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는 것이다. 혹시 예수만 부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3-24절 말씀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보면, 부활에 순서가 있어서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sup>109)</sup> 세 번째로 마지막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에 부활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저주 받은 자들의 부활인 것이다.<sup>110)</sup> 지금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중간 시기이므로 부활이 없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부활의 차이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부활하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표현도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런 용어들이 자칫 구원이 행위의 선함과 악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선행과 악행의 기준을 세상적

109) 김세윤, *고린도전서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383.

110) 부활의 몸이나 부활의 순서 혹은 내세에 대한 교리와 같은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성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상에도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지키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법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며, 주님이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바. 은혜의 선물 영생

먼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수명의 연장이 아니며, 죽지 않고 오래 오래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 건강장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늙고 병든 몸으로 수백 년 수천 년 계속하여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며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특별한 축복으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에도 고통스러운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영생이란 현재의 삶과 무관한 천국의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생이란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도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알고 또 알아도 또 새롭게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생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축복의 삶인 것이다.<sup>111)</sup>

이렇게 좋은 영생을 이때까지 왜 몰랐는가? 그 이유는 영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영생불사약을 구하러 온 천하에 사람을 보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생불사약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영생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역사적 사실인 썸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없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5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됨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생은 천국의 삶이지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생 얻는 하나님 자녀와 영생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삶의 모습이 다르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지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썸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가 주는 것이며<sup>112)</sup>, 인자 즉 주님께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111) Ray Pritchard, *사도신경풀이-내가 믿사오며*, 312.

112) 김세윤, *요한복음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111-113, 224.

## 제 6 장

### 등록교인을 위한 신앙교육 과정의 운영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들 가운데 초신자보다 기존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의 기초 교리 교육의 필요성이 새롭게 생김으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비록 기존신자라고 하지만 교회에 등록한 기회를 활용하여 신앙적인 성장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서 기존신자 중심의 등록교인들이 브니엘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신자 교육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규 등록교인들에 대한 돌봄이 기존 교인들에게 소외감이나 배타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존 교인과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교재의 특성은 문답식 교리교육 교재와 달리 사도신경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성경공부를 하듯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브니엘교회에서 신규 등록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교육 과정 참여와 운영 방법

본 절에서는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교육 과정 참여와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1. 순환식 교육 내용과 계단식 교과 과정

브니엘교회의 새가족성경공부 과정은 기초신앙교육과정으로서 겨자씨성경공부와 기초교리교육과정으로서 사도신경성경공부 두 과정으로 되어 있다. 기초신앙교육과정인 겨자씨성경공부 교재는 1과 구원의 길, 2과 성령충만한 삶, 3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4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5과 브니엘교회를 소개합니다, 6과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등 모두 6과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교리교육과정인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는 1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2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4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5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 6과 성령 하나님, 7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8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등으로 모두 8과로 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에는 거의 매주 새신자들이 등록을 한다. 그러나 겨자씨 성경공부와 사도신경성경공부는 한 번 시작하면 6주 혹은 8주가 지나야 끝이 난다. 그러므로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새가족성경공부가 마침 1과부터 새로 시작하는 때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6주나 8주를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두 교재 모두 각 과는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어느 과부터 들어도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등록교인은 등록하는 그 주일부터 새가족을 위한 기초신앙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은 순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순환식으로 첫 과정으로 겨자씨성경공부의 6과를 모두 수료하면 그 자리에서 수료식을 하고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축하해준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사도신경성경공부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계의 교리공부도 역시 순환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과부터 배운다 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각 공부가 순환식으로 되어 있지만 겨자씨 성경공부를 배우다가 도중에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에 가서 배우다가 다시 겨자씨성경공부에서 빠진 것을 배우는 식으로 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 일단 겨자씨 성경공부의 6과를 모두 마치고 수료한 사람이라야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점에서 각 과정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과정의 각 과를 순환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각 과정에서 모든 과를 마치고 수료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성경공부로 올라가서 배울 수 있는 계단식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성경공부 참여 권유와 결석자 관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경공부 과정을 운영할 때 다 비슷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새신자 관리를 잘하여 빠지지 않고 모든 과를 다 배우고 수료할 수 있도록 결석자 관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교회에서 실시되는 성경공부들은 대개 계단식으로 되어 한 번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각 과를 순서대로 배워야 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결석으로 처리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결석자만을 위하여 빠진 부분을 따로 보충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브니엘교회 새가족을 위한 기초신앙교육 과정은 모두 순환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과를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매주 주보에 이번 주에 새가족을 위한 겨자씨 성경공부나 사도신경 성경공부에서 몇과를 공부하는지 광고를 반드시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주보의 광고를 보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빠진 과목을 찾아서 보충하여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공부 결석자를 위하여 빠진 과목을 보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사람을 정하여 책임지고 매주 마다 결석자에게 이번 주에 오면 빠진 과목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빠지지 말고 꼭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여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석자는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몇 달 혹은 심지어 1-2년 지난 뒤라도 추적하여 연락하고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공부 과정의 모든 과를 빠짐없이 수강하고 수료식을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에는 결석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빠진 과가 다시 돌아와서 수강을 할 수 있을 때, 담당자가 미리 연락하여 이번 주일 빠진 과목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목회자가 살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과를 강의하는 강사는 결석자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확인을 해야 하며 수업을 돕는 도우미도 결석자 관리에 책임을 지고 미리 연락을 하도록 새가족부가 조직되어 있다.

## 3. 수료식과 함께 다음 단계로 안내

새가족은 교회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처음 등록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새가족 성경공부하는 곳까지 일련의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혼란이 없다. 새로 등

룩한 교인에게 스스로 찾아가게 하면 자칫 어딘지 제대로 장소를 찾지 못할 수 있고 그러다 자칫 성경공부에 대한 흥미도 같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새가족부는 등록교인을 인도하여 새가족성경공부 장소까지 잘 안내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첫 과정인 6과목의 겨자씨성경공부를 6주에 걸쳐서 수료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수료선물을 주고 축하를 해준 다음, 다음 과정인 사도신경성경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준다. 그런 다음 수료자 명단은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주간에 연락을 하여 다음 주에 한 단계 옮겨진 성경공부 장소로 찾아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 4. 가르치는 자의 전문화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르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브니엘교회의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은 겨자씨성경공부와 사도신경성경공부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본 교회에서는 이 두 단계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에서 한 사람의 강사가 하나의 과정 전체를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

각 과정의 각 과마다 담당 강사를 따로 정한다. 그리함으로 강사 한 사람이 하나의 과를 맡아서 계속 반복하여 가르침으로 자신이 맡은 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여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겨자씨 성경공부교재를 가르치는데 모두 6명의 강사가 있다. 그러나 사도신경 성경공부교재를 가르치는 강사는 8과를 가르칠 8명의 강사가 있어야 하지만 강사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2-3명의 강사가 몇 개의 과를 나누어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각 강사는 각각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만 전문적으로 매 주일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과에 대하여 통달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다 쏟아 넣어 열심히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교재의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다.<sup>113)</sup>

실제로 본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함께 장로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들이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은 다음 하나의 과목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강사의 경우는 신학적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일대일 지도자과정까지 수

113) Donald A. McGavran & Winfield C. Arn, *교회 성장의 열단계*, 129.

료한 사람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강사로 세우고 있다. 그리함으로 혹시 있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제 2 절 신앙성장 단계에 맞춘 순차적 교회활동 참여

교회는 성경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때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양육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브니엘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7단계의 양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다.

### 1. 1단계 겨자씨 성경공부 수료 후 교제와 활동 참여

브니엘교회에서 등록교인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공부의 1단계는 신앙의 기초과정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등록과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가족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교회도 새가족반 과정으로 6주 과정의 겨자씨 성경공부라는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브니엘교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기초신앙 과정을 새로 등록한 교인만 아니라 기존교인들도 모두 배우도록 하는 점과 새로 등록한 교인은 소속 구역장의 인도 아래 기초신앙과정을 배운 다음에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 등 교회 내의 교제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14)</sup>

겨자씨 성경공부 교재의 내용에는 1과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2과에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충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과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울 수 있게 하고, 4과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조직들을 배우고, 5과에서는 장로교회로서 브니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배우도록 하였는데, 이때 브니엘교회의 3대 지표와 5대 신앙의 비전을 제시한다.

### 2. 2단계 사도신경 성경공부 수료 후 섬김의 자리 부여

1단계를 수료하면 2단계로 신앙 확립 과정이 있는데 이는 기초신앙교육과정을

114) 고용수, 권용근, 김광률, 송남순, 이영호, *기독교교육개론(상)*, 289-290.

통하여 어느 정도 신앙의 기초는 갖추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개설된 새로운 신앙교육 과정으로 앞 장에서 다룬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배운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는 8주 과정을 통하여 사도신경에 들어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교회에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교인에 대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와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

사도신경을 배우는 교리 교육의 8주 과정도 새로 등록한 교인은 물론이요, 기존 교인들도 모두 배우도록 하는 방침은 전 단계의 성경공부와 같다.

### 3. 3단계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수료 후 지도력 인정

3단계 신앙교육은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이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귀는 높고 손과 발은 약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좋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공부를 많이 해서 귀는 높은데, 남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손과 발은 약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sup>115)</sup>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의 내용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4가지 신앙의 실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신앙교육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는 먼저 이 교재를 배운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최소한 6개월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 일대일로 혹은 일대이로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진 신앙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어 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함께 공부하는 두세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친밀한

115) 두란노서원에서 발간된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는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여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많은 교회에 보급이 되었다. 필자는 온누리교회에 부목사로 일하면서 이 교제를 알게 되었고 오래 동안 이 교제를 활용하여 가르쳐본 결과 교인들의 신앙성장에 다른 교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브니엘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일대일지도자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일대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현재 본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들 대부분이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의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4. 심화 과정을 위한 기타 영성훈련 단계들

##### 가. 4단계 영성훈련 과정

다음 단계로는 영성훈련 과정이 있다. 브니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과정 가운데 1단계 기초신앙교육과정과 2단계 사도신경 공부과정 그리고 3단계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 과정은 정규적인 과정으로 본 교회 교인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며, 상시적으로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지 일대일제자양육과정은 성격상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교실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4단계부터는 영성심화 과정으로 교회 전체 교인 가운데 보다 높은 신앙적 욕구가 있는 일부 교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신앙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 년에 한 번 혹은 격년으로 실시되는 일시적 신앙교육 과정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큐티학교가 있고 기도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학교가 있는데, 큐티학교는 4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도학교는 8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론 큐티와 기도는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를 배울 때 다루고 있지만, 큐티학교와 기도학교는 이를 더 심화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sup>116)</sup>

##### 나. 5단계 치유와 회복 과정

116) Michael Downey,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Mahwah, NJ: Paulist Press, 1997), 45.

본 교회에서 많은 성경공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할지라도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신앙수련회의 영역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실제로 일 년 동안 성경공부한 것과 신앙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신앙적 체험을 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 신앙수련회의 효과를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브니엘교회는 매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수련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전교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또 그렇게 되면 보다 심도 깊은 수련회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50명 전후의 인원을 제한하여 신앙수련회를 실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한국의 사회구조는 남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영적으로 지치고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여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브니엘교회에서는 두란노서원에서 실시하는 아버지학교를 교인들에게 권장한다. 본 교회에서 매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광고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다. 6단계 제자도 과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다니는 교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 것이라 생각한다. 천국을 소유한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구체적인 결과는 거룩한 삶과 전도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일 것이다. 실제로 전도하라고 하면 많은 교인들이 부담을 느낀다. 전도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경우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전도를 피해버리는 수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브니엘교회는 8주 과정의 전도학교를 격년으로 혹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있다. 실제적인 전도방법과 전도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대화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실습을 통하여 배움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sup>117)</sup>,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같은 가르침

117) Keith Phillips, *제자양육론*, 전요섭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16-17.

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을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 라. 7단계 사역자 과정

브니엘교회의 신앙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단계요, 동시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과정이다.<sup>118)</sup>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앙의 지도자로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를 비롯하여 교회학교 교사와 구역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7단계 사역자 과정은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이미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재교육적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위한 중직자 일일수련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대학과 교사수련회 및 구역장 수련회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은사발견 과정을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교회봉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표 8>은 브니엘교회의 교인들이 등록 이후에 거쳐 가는 성인교인을 위한 양육의 7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브니엘교회의 성인 양육 7단계 체계도



118)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42.

브니엘교회의 성인양육 7단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기초 신앙고백 과정 : 새가족반(6주)

2단계 신앙확립 과정 : 사도신경반(8주), QT학교(4주)

3단계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4단계 영성훈련 과정 : 기도훈련학교(6주), 전도훈련학교(6주)

5단계 치유와 회복 과정 : 교회수련회, 아버지학교, 부부세미나

6단계 제자도 과정 : 일대일성경공부지도자반, 산상보훈성경공부

7단계 사역자 과정 : 심부장교육, 교사대학, 중직자수련회

### 제 3 절 브니엘교회 새가족부와 사도신경 교재의 활용

본 절에서는 브니엘교회의 새가족부와 사도신경 교재의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새로 만든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얻은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사항등을 논의하려고 한다.

#### 1.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도입의 효과

##### 가. 긍정적인 효과들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등록교인들 가운데 기존신자들에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으로 기초성경공부를 참여하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전에 교회에 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주제별로 된 기초성경공부를 배웠었는데 여기서 다시 비슷한 과정을 배우라고 하니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성경공부라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래 동안 신앙생활을 한 기존교인이나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사도신경은 세례 받을 때 외운 것이요, 평소에 예배시간마다 암송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도 더러 있었고,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하여 알고 싶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



도신경공부를 한다는 것이 신규 등록교인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전에는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던 사도신경에 대하여 참으로 소중한 신앙고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교회 다니며 궁금했던 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였으며 전부터 알고 싶었지만 풀리지 않던 신앙적인 의문들이 많이 해결되었다는 교인들도 상당 수 있었으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반응은, 원래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를 만들 때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적 내용만 다룬 것이 아니라 다년 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질문 받은 신앙적인 의문점들과 여러 가지 성경공부를 가르치면서 질문 받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재를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나. 초신자의 신앙확립과 체계적 양육의 실현

사도신경 성경공부는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 가운데 초신자보다 기존교인들이 수평 이동하여 전입해오는 교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의 신앙교육을 돕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통하여 기독교의 기초교리를 배우는 것이 초신자들에게 신앙적으로 더욱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등록교인들을 위한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에서 사도신경성경공부 과정을 도입하게 됨으로 이 교재를 만든 본래 대상인 기존신자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초신자 등록교인에게도 생각보다 큰 신앙적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초신앙교육의 첫 단계로 배우는 겨자씨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제별로 구원과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없었던 기독교 교리들을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통하여 배우게 되면서 신앙의 원칙과 기본 진리를 알게 되어 영적 분별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주일대예배 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암송하던 사도신경의 각 내용마다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며 그 의미를 배우게 되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적인 확신을 얻게 되고 신앙적으로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알 수 있었다.

### 다. 등록교인의 교회 정착의 효과적 개선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에서 기초교리 교육과정으로 사도신경 성경공부 과정을 추가함으로 얻게 된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는 등록교인들의 교회 정착에 도움을 주어 보다 쉽게 낯선 교회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정착과 적응은 기존 교인들과 신규 등록교인 사이에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 때 자연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다른 교인들과 교제가 없는 외톨이 교인은 소외감으로 교회 안에서 나만 이방인 같이 생각되어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가족을 위한 기초성경공부인 6주 과정의 겨자씨 성경공부 과정 하나만 있을 때보다 한 단계 더하여 신앙성숙 과정인 사도신경 교리교육 과정을 배우기 위하여 8주 동안 새가족부원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를 오가는 동안 기존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교인들과 교제의 기회가 더 많아져서 교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기초성경공부과정에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서 기초신앙교육 과정 하나만 있을 때보다 신규 등록교인들의 교회 정착율이 약 20퍼센트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에 맞아서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교회에 정착하여 계속 출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교인들 사이의 교제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심지어 처음 교회를 나온 목적이 없어지더라도 교인들 사이에 교제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sup>119)</sup>

이렇게 교제권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는 교인들에게 이끌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신규 등록교인은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개선점

### 가. 8주 과정의 제도적 문제

119) Rick Warren,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옮김(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363-364.

브니엘교회에 새로 등록한 한 교인이 필수 과정으로 반드시 수료하도록 되어 있는 새가족성경공부와 사도신경성경공부의 두 과정을 모두 마치는 데는 14주가 필요하다. 14주의 기간은 정확하게 석 달 반이라는 기간으로 길다면 긴 시간이다. 하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과정을 시작한 모든 등록교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낙오자는 늘어갈 것이다. 성경공부를 시작했으나 수료하는 사람은 적어진다는 말이다.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공부하는 양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 교회에서 등록교인이 거쳐야 하는 석 달이 넘는 기초성경공부와 기초교리공부 과정에 참여한 등록교인이 두 개의 과정을 모두 마치는 비율을 보면 교회에서 빠지지 않도록 연락하고 결석한 과를 다시 배우도록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70퍼센트 전후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배우기 시작해서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료하도록 계속 연락하고 독려하지만 일 년 안에 두 개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수료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등록교인이 필수적으로 수료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성경공부와 기초교리교육은 가능한 더 이상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sup>120)</sup>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각 과의 내용이 한 시간에 배우는 양으로서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과를 한 시간에 마치지 못하고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브니엘교회의 교육 체제에서는 한 단계의 성경공부를 6주에서 8주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나.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교육

등록교인들을 위한 성경공부는 등록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개의 경우 주일날 실시하게 된다. 새로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주일이 아닌 주중에 나와서 성경공부를

120)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09. 여기서 새들백교회는 새신자반 과정은 불과 4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등록교인을 위한 기초성경공부는 하나의 과정이 8주를 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주일에 성경공부를 실시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브니엘교회에서는 주일대예배를 마친 다음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오후예배하기 전까지 두세 시간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새가족을 위한 기초성경공부들을 실시하고 있다. 원래는 한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사에 따라 대개의 경우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려서 한 과를 마치고 있다.

강사가 여럿이다보니 비록 같은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말은 과목이 각 강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혼란은 없다. 그래도 강의 내용에서 서로 상충하거나 차이가 생기면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혼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혼란스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의를 맡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재 전체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재 연구를 하고 교재를 가르칠 때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준 다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비록 강사가 과목마다 다르지만 일관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졌고, 각 강사는 자기가 맡은 한 과만 책임지면 되지만 교재 전체를 같이 연구 검토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모두 알고 가르침으로 강사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강의 내용의 중복이나 가르치는 내용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이나 혼란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 다. 사도신경 자체의 한계성과 개선 방향

사도신경은 교리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교회의 신앙고백용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다 보니, 교리적으로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고백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 많은 중요한 성품들이 있지만,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은 귀중한 성품들이 다루어질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은 다음 단계의 성경공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은 성부 하나님과 비교하면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는다”는 단 한 마디뿐이다.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고백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에 대한 교리들을 좀 더 추가하여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 한국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교리는 교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신학적으로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만족스런 교리교육 교재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며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음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너무 간단하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간단한 용어의 나열만으로 제대로 교리를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도신경성경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충분히 보충을 하여 내용적으로 풍부하도록 하였다.

#### 라. 강의식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들

현재 브니엘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가족의 신앙성장을 위한 기초성경공부와 교리교육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모두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식 공부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의식 성경공부의 문제점은 개개인의 신앙적 문제와 개인적으로 묻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것을 일일이 설명해주고 개별적으로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개인적인 의문점까지 다 해결해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강의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신규 등록교인들은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이 많다. 더구나 초신자의 경우에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문이 많은 법이다. 그래서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일수록 질문과 대화의 시간은 절실하다. 브니엘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의 도중에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강의를 마친 다음 질문 시간을 가짐으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 생각한다.<sup>121)</sup>

121) Marvin Taylor ed., *기독교 교육학*, 474-475.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기초성경공부로서 겨자씨 성경공부와 기초교리공부로서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일대일 혹은 일대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짐으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부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 7 장

## 결 론

본 논문은 브니엘교회의 교인들에게 교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의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목적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이 성경공부 교재는 짧은 기간과 한 번의 시도로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 형식을 가진 어슬픈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교회 권사들을 중심으로 첫 강의를 실시해 보았다. 새신자들에게 먼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완성되지 못한 베타판 같은 성경공부 교재를 선보여서 새신자들에게 성경공부란 재미없는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나 교회의 첫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교리 교육용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첫 강의를 실시하는 동안 권사들의 반응이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교재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본 연구자가 보기에 교재의 내용이 진부하게 생각되었고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마음으로 사도신경과 관련된 성경공부 교재를 더 찾아보고,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물론이요 장 칼뱅의 기독교강요 등을 다시 살펴보면서 보충해야 할 필수적인 교리들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과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 그리고 신앙적인 의문점들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정확하게 교인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 년 이상의 각고 끝에 처음 만들었던 교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지루하지 않도록 가능한 페이지마다 교재의 내용과 어울릴 만한 적당한 삽화도 넣었다.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대상이 등록교인들이 중심인 만큼, 특히 그중에서 초신자들 대부분이 성경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았기에 가능하면 대부분의 성경구절들은 문제 아래에 바로 비치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 한 과를 마쳐야 하는 새가족 성경공부의 성격에 맞추어서 성경을 찾느라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시 만들어진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신규등록교인들 가운데 초신자들이든지 기성교인들이든지 막론하고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공부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본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까지 본 교재를 공부하도록 한 결과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성경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분자들 역시 본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의 유익성을 인정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본 논문은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가 필요했던 브니엘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소개하고, 이런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고려해야 했던 사항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며, 이 교재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히 살펴봄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1 장은 본 논문의 목적이 등록교인과 기존교인 사이의 신앙적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기독교의 기본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신앙적 성숙과 영적 분별력을 양성하여 이단의 유혹에서 교인을 보호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런 목적을 위하여 사도신경에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되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인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 하는 성경이나 신앙의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음을 기술하였다.

제 2 장은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브니엘교회의 교인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신규 등록교인들의 교회 적응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일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브니엘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 느낀 교회의 침체된 분위기와 영적인 위축되어 있던 기존교인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가 위치한 산본지역 거주민들의 문



화와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고, 본 교회 교인들의 구성과 상황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신규 등록교인들의 정착을 위한 개선점과 기존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심방과 교제적 행사들과 성경공부반과 같은 목회적 노력들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제 3 장에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앙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로교의 신앙전통을 세워주고 개혁신앙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한 3대 지표와 5대 실천사항들을 새롭게 제시한 목회비전을 기술한 다음, 새로 등록하여 교회에 전입하여 들어오는 신규등록교인들과 함께 기존교인들의 신앙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교리교육 목적의 사도신경 성경공부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제 4 장은 사도신경 내용을 중심으로 교리 교육 목적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기독교 교육학적 방향과 한국 교회 교인들의 사고와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배경과 근간이 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재래 종교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앙적인 오해와 왜곡된 행동 양상 등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서 사도신경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함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확립과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은 물론이요 이단의 유혹에서 교인들의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5 장은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에서 다루어진 교리적 내용과 각 문제들의 의도와 목적 등을 1과에서 8과까지 교리의 항목과 주제별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제 6 장은 브니엘교회의 등록교인의 신앙 성숙과 확립을 위한 교육 과정의 순환식 교육과 계단식 과정이라는 운영 원칙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석자 관리와 성경공부 강사의 전문화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고 새로 만든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얻은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 마지막에 사도신경 성경공부 교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일부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끝으로, 미력이나마 본 논문이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의 기본교리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성숙을 이룩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 기독교교리 교육용, 사도신경공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본

## 제 1 과

###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 ◎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지금도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이며,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외워봅시다.

#### 사 도 신 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 A. 신앙의 법칙

- 도로 위에는 매일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통법규가 없다면, 날마다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통법규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잘못된 이단이나 그릇된 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필요를 깨달은 교회는 신앙의 법칙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정리하여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도신경」은 지금까지 약 2천년의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져 왔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도신경은 올바른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신앙과 다른 내용을 복음이라고 전할지라도 교인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혹은 천사 같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유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유혹에 빠져 사도신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갈라디아 1:8-9)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_\_\_\_\_

\_\_\_\_\_

\_\_\_\_\_

2.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대로 믿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축복받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대로 믿는 사람과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됩니까?

(요한이서 1: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_\_\_\_\_

\_\_\_\_\_

\_\_\_\_\_

3.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며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_\_\_\_\_

\_\_\_\_\_

\_\_\_\_\_

4. 만약에 사도신경적인 믿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교회의 경건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3-5)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_\_\_\_\_

\_\_\_\_\_

\_\_\_\_\_

5. 오늘날 모든 올바른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내용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를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서 1:10-11)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_\_\_\_\_

\_\_\_\_\_

\_\_\_\_\_



### 제 3 과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자기가 자란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고향 친구를 보면서 잊었던 추억과 함께 옛 기억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옛 기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옛 기억들과 함께 옛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 A.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말씀과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목수였으며 고향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잘 알다보니,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란 고향도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도 이런 것들이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을 때, 빌립의 전도를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45-46)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2.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 자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 겪어본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보통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4: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_\_\_\_\_

3.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분이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3: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_\_\_\_\_



4.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증언한 사람은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 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하여 광야에서 천국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32-34)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_\_\_\_\_

## 제 7 과

###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 ◎ “교회”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 혹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모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하심 가운데 말하기를 교회는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1. 예배 시간 기독교의 중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의하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_\_\_\_\_

---



---

2.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면 어떤 점에서 거룩한 것일까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거룩하다고 믿거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실망하여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조직과 제도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레위기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_\_\_\_\_

\_\_\_\_\_

\_\_\_\_\_

3.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고린도전서 6:10-11)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_\_\_\_\_

\_\_\_\_\_

\_\_\_\_\_

- 이천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고백되고 사용되어 온 사도신경에 의하면 기독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공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달리 특별하게 좋아 보이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면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며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베드로전서 2:5)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도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21-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_\_\_\_\_

\_\_\_\_\_

\_\_\_\_\_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고용수, 권용근, 김광률, 송남순, 이영호. *기독교교육개론(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기독교사상 편집부편. *한국의 문화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김기홍. “기독교교리 교육을 통한 진정한 교회성숙 - 웅암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김길수. “효과적인 새신자 양육 교재 개발 - 청주중앙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김세윤. *그리스도와 가이사*.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_\_\_\_\_. *고린도전서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3.
- \_\_\_\_\_. *요한복음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 \_\_\_\_\_.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1.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태곤. *샤머니즘이 현대 한국 민간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리: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3.
- 김태영. *새 신자의 눈높이로*. 서울: 쿼란 출판사. 2007.
- 나겸일. *주안장로교회의 새 가족 관리의 실제*. 인천: 주안장로교회. 1997.
-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1998.
- 목만수. *선교 신학 문화*.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출판부. 2002.
- 민경석.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새가족 양육 -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박원영. *새 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1999.

- 박종무. *믿음의 새 출발*. 서울: 양서각, 1984.
-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 양복석. *새 신자 및 기존신자 훈련교재총서*. 서울: 지혜원, 1988.
- 양승훈. *기독교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1999.
- 엠마우스. *믿음의 길*.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78.
- \_\_\_\_\_.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94.
- 이상운. *목회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 이용남. *새신자목회(상)*. 서울: 도서출판 들꽃이, 2000.
- 이장식 편역. *기독교신조사(제I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0.
- 이종성. *이종성저작전집 5권 성령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_\_\_\_\_. *이종성저작전집 17권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_\_\_\_\_.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_\_\_\_\_. *거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이형기 편. *세계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 서울: 총회출판국, 1991.
- 임성빈편. *기독교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최준석. *한국 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9.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기독교와 문화*.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 한국기독교학회편,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한국기독교대학인회. *기독교 신앙으로 안내하는 길*. 서울: 성경읽기, 1987.

## 2. 번역서적

- Barth, Karl. *사도신경 해설*, 신경수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Bonhoeffer, Dietrich. *그리스도론*.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Conzelmann, Hans.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Erikson, Erik. H.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 Fowler, James W.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Gumbel, Nicky. *인생의 의문점들*.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 사랑, 2006.
- Gonzalez, Justo L. *기독교사상사(I) 고대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 Hakes, J. E. *기독교 교육학 개론*. 정정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Hughes, Phillip Edgcumbe. *요한계시록*.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4.
- \_\_\_\_\_. *반즈성경주석 히브리서(下)*. 이남종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1.
- Kim, Seyoon. *그 '사람의 아들'(人子)-하나님의 아들*. 최승근 옮김.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2.
- \_\_\_\_\_. *바울복음의 기원*. 홍성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 Kraus, Hans-Joachim. *조직신학*. 박재형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Kuhne, Gray W. *새 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 Little, Paul E. *이래서 믿는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Ladd, George Eldon.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Lockerbie, D. Bruce. *사도신경 강해*.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옮김. 서울: 목양사, 1986.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McGavran, Donald A. & Winfield C. Arn. *교회 성장의 열 단계*. 오태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McKim, Donald K. 편저, *칼빈 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Moore, Waylon B.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7.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Phillips, Keith. *제자양육론*. 전요섭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 Pritchard, Ray. *사도신경풀이-내가 믿사오며*, 박세혁 옮김. 서울: 사랑플러스, 2007.
- Richards, Lawrence O. *교육신학과 실제*.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1.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3명 역. 서울: NCD, 1999.
- Sherrill, Lewis Joseph. *만남의 기독교 교육*. 김재은, 장기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Smart, James D.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Stott, John.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Taylor, Marvin J. ed. *기독교교육학*. 송광택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2.
- Warren, Rick.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옮김.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1996.

### 3. 외국서적

- Downe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Mahwah. NJ: Paulist Press, 1997.
- Pannenberg, Wolfhart. *The Apostles' Creed in the light of today's questio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 Sherrill, Lewis.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44.

Vita of  
Young Chul Koo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Peniel Presbyterian Church, Gunpo

Personal Data:

|                 |   |
|-----------------|---|
| Birthdate:      | January 12 1958   |
| Marital Status: | Married to Mi Hwa Koo<br>with two children Haeyeon & Sungjae  |
| Home Address:   | 61 Sanbonro 386th Street. Apt. #1123-604<br>Gunpo, Gyeonggido |
| Home Phone:     | 031-395-0691  |
| Cellular Phone: | 010-3103-9091   |
| Denomination: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 Ordained:       | March 23, 1988  |

Education:

|          |  |
|----------|--|
| B. E.: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80                           |
| M. Div.: |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br>Seminary, Seoul, 1986 |
| Th. M.:  |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br>Seminary, Seoul, 1988 |
|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4                      |

Personal Experience:

|                    |   |
|--------------------|---|
| 7/2001 to present: | Senior Pastor<br>of Peniel Presbyterian Church, Gunpo |
|--------------------|---|

|                   |  |
|-------------------|--|
| 11/1998 to 6/2001 | Senior Pastor<br>of Valley Bansuk Presbyterian Church,<br>Chatsworth |
| 11/1991 to 7/1998 | Senior Pastor<br>of Eunsung Presbyterian Church, Busan               |
| 2/1988 to 11/1991 | Assistant Pastor<br>of Onnuri Community Church, Seoul                |